

# 콩 식품류 소비트렌드 및 포천시 콩 발전 전략



농업경영 당면정책, 지도, 연구자료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경기농업 경영 정보 자료집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연천군 콩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발전모델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



소비트렌드의 지속적 변화, 기후변화에 의한 작물 재배 리스크 확대 등 지역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의 효능이나 선호도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은 급격히 변화합니다. 기후위기는 지역별 작물 재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작물 재배 지도는 지난날과 다른 모습입니다.

경기도는 시군별 차별화된 작목 선택과 그에 맞는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기농업은 수도권 근교농업의 장점과 도시화 산업화의 위협 등 양면성을 갖추고 있어 대내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지역농업 발전 전략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콩 식품류 소비트렌드 및 포천시 콩 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포천시 지역육성작목 콩의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하여 포천시콩연구회 농업인, 농협·민간 유통 전문가, 가공 및 상품화 전문가, 연구 및 지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조사와 협의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콩 식품류 소비트렌드 및 포천시 콩 발전 전략』 자료에는 지역농업 발전모델을 적용하여 포천콩 생산-유통 연계, 식품산업화 및 지역융복합 사업 방안 등 분야별 전략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본 자료집을 통해 포천시 콩이 특화작목으로 육성되어 농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도-시군 공동 연구에 협력해 주신 포천시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등 관계관께 감사드리며, 콩 시장테스트 진행에 도움 주신 농촌진흥청 관계관께도 감사드립니다.

2026. 4.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조 정 주**

<b>I. 서론</b>	<b>9</b>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2. 연구 내용	12
<b>II. 국내 콩 생산 및 시장동향</b>	<b>15</b>
1. 콩 생산동향	16
2. 콩 시장동향	22
<b>III. 콩 식품류 소비트렌드 분석</b>	<b>27</b>
1. 소비자 신선 콩류 구매 특성	28
2. 콩 식품류 소비 실태 및 향후 구매 의향	32
3. 콩증에 대한 소비자 반응 조사 결과	48
<b>IV. 포천시 콩 생산 및 유통 실태</b>	<b>51</b>
1. 포천시 콩 생산동향	52
2. 재배 품종 집중도(HHI) 및 분산도	54
3. 포천시 콩 생산 및 유통관련 이슈 분석	56
<b>V. 비교대상 지역의 콩 육성사례</b>	<b>57</b>
1. 충남 당진시 콩 생산동향	58
2. 당진시 콩의 혁신 성장과 주요 성과 요인	59
<b>VI. 포천시 콩 육성 전략 및 분야별 발전 과제</b>	<b>63</b>
1. 포천시 콩 발전 방향 분석	64
2. 포천시 콩 산업 종합진단 및 발전의 3대 전략축	69
3. 포천콩 식품산업화 및 지역융복합 사업 방안	70
<b>VII. 요약 및 결론</b>	<b>77</b>
<b>VIII. 부 록</b>	<b>83</b>

<표 1> 경기도 시군별 수확량 증감률 비교	21
<표 2> 이상기후에 따른 콩 재배 대응 전략	21
<표 3> 콩 유형별 구입액	29
<표 4> 가구당 콩 식품류 종류별 구입액의 변화	33
<표 5> 연령대별 가구구성원 수	36
<표 6> 연령대별 월평균 식비	36
<표 7> 연령대별 하루 평균 식사 횟수의 분포	37
<표 8> 연령대별 현재 소비하는 콩 식품류	37
<표 9>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현재 소비하는 콩 식품류	39
<표 10> 월평균 식비에 따른 현재 소비하는 콩 식품류	40
<표 11> 하루 평균 식사 횟수에 따른 현재 소비하는 콩 식품류	41
<표 12> 구매를 늘릴 의사가 있는 콩 식품류	42
<표 13> 콩 식품류별 향후 구매를 늘릴 의사가 있는 이유	43
<표 14> 향후 구매를 줄이고 싶은 의사가 있는 콩 식품류	44
<표 15> 향후 콩 식품류별 구매를 줄일 의사가 있는 이유	45
<표 16> 가래울영농조합 생산 콩즙(물)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 금액	50
<표 17> 2024년 포천시 콩 품종별 재배현황	54
<표 18> 콩 전체 집중도(HHI) 및 최다품종 점유율	54
<표 19> 품종 집중도와 수확량 증감률간 상관계수	55
<표 20> '24년 포천콩의 수매현황 및 주요 판로	56
<표 21> 포천시의 공공급식 관련 조례	71
<표 22> 포천시 농업재단 추진사업	71

## 그림 목차

<그림 1> 전국 콩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변화 추이	16
<그림 2> 전국 콩 재배면적의 변화 추이	17
<그림 3> 밭콩 및 논콩 재배면적 변화	17
<그림 4> 지역별 콩 재배면적 및 생산량 비교	17
<그림 5> 경기도 콩 재배면적의 변화	18
<그림 6> 전북지역 콩 재배면적의 변화	18
<그림 7> 경기도 콩 생산 변화 추이	18
<그림 8> 경기도 10a당 수확량의 변화	18
<그림 9> 전북 10a당 수확량의 변화	19
<그림 10> 전남 10a당 수확량의 변화	19
<그림 11> 경기도 콩 재배현황	19
<그림 12> 경기도 10a당 콩 수확량의 변화	20
<그림 13> 파주시 10a당 콩 수확량의 변화	20
<그림 14> 연천군 10a당 콩 수확량의 변화	20
<그림 15> 포천시 10a당 콩 수확량의 변화	20
<그림 16> 콩 유통경로	22
<그림 17> 콩(대두) 수입량 및 용도별 소비 실태	23
<그림 18> 콩 식량자급률 및 1인당 연간 소비량	23
<그림 19> 콩(대두)의 식품류 사용량 및 국산 사용비중	24
<그림 20> 콩(대두)을 이용한 주요 가공품 비중	24
<그림 21> 연도별 국산 콩(백태) 도매가격 변화 추이	25
<그림 22> 국내산 콩(백태)과 수입산 콩(백태)의 가격 차이	25
<그림 23> 신선 콩류 구입현황	28
<그림 24> 구입처별 콩 구입액	29
<그림 25> 연령별 콩 구입액	30
<그림 26> 가구구성원별 콩 구입액	31
<그림 27> 소득수준별 콩 구입액	31
<그림 28> 콩 식품류 종류별 구입현황	32
<그림 29> 구입처별 콩 식품류 구입액	33

<그림 30> 연령별 콩 식품류 구입액	34
<그림 31> 가구구성원별 콩 식품류 구입액	35
<그림 32> 소득수준별 콩 식품류 구입액	35
<그림 33> 콩 식품류	41
<그림 34> 콩즙 또는 콩물 관련 제품 산업 성장세	48
<그림 35> 콩즙 또는 콩물 제품 구입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49
<그림 36> 국내 주요 콩 산지 인지도	49
<그림 37> 경기 북부지역 콩 브랜드 인지도	49
<그림 38> 가래울영농조합 생산 콩즙(물)에 대한 소비자 응답자 구매의향	49
<그림 39> 포천시 콩 생산 변화 추이	52
<그림 40> 포천시 10a당 콩 생산성	52
<그림 41> 콩 주산지별 특화계수	53
<그림 42> 콩 주산지의 10a당 생산량 비교(2021년 기준)	53
<그림 43> 포천시 읍면동별 콩 재배면적 분포	53
<그림 44> 재배규모별 농가현황	53
<그림 45> HHI와 수확량 증감률간의 상관관계(전체)	55
<그림 46> 상관관계(밭콩)	55
<그림 47> 당진시 콩 생산현황	58
<그림 48> 2024년 콩 재배면적	58
<그림 49> 포천시 콩 산업구조 분석 결과	66
<그림 50> 포천시 콩 산업 발전 방향	67
<그림 51> 포천콩 생산과 유통 경로별 판매량	70
<그림 52> '24년 학교급식용 친환경 콩 이행물량	72
<그림 53> 학교급식용 친환경 콩 계약재배 참여 의향	72
<그림 54> 경기북부 콩 유통 경로별 판매량 비교	73
<그림 55> 포천시 콩 이용 식품가공업체, 음식점, 카페	73
<그림 56> 가래울영농조합법인 콩물 제조	74
<그림 57> 콩물 디자인 및 제품정보	74
<그림 58> 가래울영농조합 생산 콩즙(물)에 대한 소비자 응답자 구매의향	75



I

---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기후위기, 농업정책, 소비트렌드 등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개선과 성장성 있는 작목과 연계한 지역농업 발전 전략 개발 및 지원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음.

- 그간의 지역농업 발전 전략의 방향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규모화에 초점을 두거나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생산전략, 지역농업 조직화 관점의 발전 전략 등 농업생산 또는 산지 유통 개선 등 단선적으로 접근해 왔음.
- 시군 행정 계획에 의거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왔으나 대부분 국가 단위 농정의 일환으로 명목적인 추진에 머물러 왔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 시군단위 법정계획이 대부분이며 생산, 유통, 농식품, 농촌 활력, 삶의 질 등에 관한 내용임.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7월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주도로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기반시설 등 육성기반 강화, 집중육성 작목 경쟁력 향상, 특화작목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지역농업 R&D 지원 과제가 추진되고 있음.
  - 국가와 지자체가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할 69개 작목을 선정하고, 그 밖에 지역 신규도입 및 확대가 필요한 작목들을 유망·보완작목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개발 계획임.
  - 경기도의 지역특화작목은 (대표작물) 선인장/다육식물, (집중육성) 느타리/표고, 콩, (자체육성) 곤충, 장미, 가지, 인삼 등 7개 작목이 선정되었음.

2) 경기도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작목을 중심으로 재배기술, 품종도입, 상품화, 농가조직화 등 부문별 발전 전략과 추진 과제를 개발하고 지원함이 요구됨.

- 경기농업은 수도권 근교농업의 장점과 도시화 위협 등 양면성을 갖추고 있어 대내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지역농업 발전 전략이 중요하게 요구됨.
-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특화작목에 선정되지 않았으나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 균형 발전을 위해 또는 미래지향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작목이 있음.

- 신품종 육성, 병해충 관리, 토양 양분관리, 기계화 작업, 수확후 관리, 가공 유통 상품화 등 가치사슬의 농업 R&D 강화,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주체가 되어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협업하는 지역발전 프로젝트가 실현되어야 함.
- 지역육성작목 발전 전략 연구를 위한 시군 및 작목 선정 기준 및 프로세스
  -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지역육성작목 발전 전략 과제」 연구 과제 공모를 통해 도농업기술원과 R&D 연계가 가능한 지역, 시군 브랜드화 상품(작목) 육성 지역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함.
  - 도와 시군의 연구·지도, 연구회, 생산자 단체소속 농업인, 농협·민간유통 전문가, 가공 및 상품화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현안문제 해결을 모색함.

### 3) 포천시 콩 산업의 주요 이슈와 발전 전략의 필요성

- 2023년 포천시 콩 재배면적은 238.4ha로 2019년 대비 7.8%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445.2톤으로 같은 기간 4.6% 감소함. 이는 재배 기반의 정체와 생산성 변동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안정화 전략이 요구됨.
- 주요 콩 주산지역의 평균 특화계수는 2.9 수준이며, 연천군(4.4), 괴산군(3.9), 김제시(3.8)에 비해 포천시(2021년 0.7)는 특화수준이 낮은 편임. 이는 포천시가 ‘전국 콩 주산지형 구조’라기보다, 지역 내 수요·유통과 결합한 틈새 전략이 적합한 지역임을 의미함.
- 지목별 재배는 논콩 5.8%, 밭콩 94.2%로 밭콩 중심 구조이며, 논콩은 대원콩 중심으로, 밭콩은 대원콩 외 청자5호, 강풍, 새바람, 청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전체적으로는 특정 품종 의존이 강해, 기상 리스크에 대한 완충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 포천시 콩은 영중농협, 가산농협, 소흘농협, 일동농협, 포천농협을 통해 수매가 이루어지며, 농협별 수매가격은 4,700~5,000원/kg 범위로 차이가 존재함.
- 농협 외 직거래 경로도 존재하며, (주)성호로의 출하(2024년 기준 연간 11,160kg), 학교급식 납품(2.4톤), 관외 가공업체 납품(37톤) 등 일부 물량은 직거래로 유통되고 있음. 이는 ‘농협 중심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도 신규 판로 확장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함.
- 현재 지역농협 수매는 대원콩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강풍콩은 인지도와 수매체계 미비로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강풍콩을 지역 전략품종으로 육성하려면 재배 확대에 더해 수매(거래조건)-가공(제품)-판매(브랜드)를 연결하는 통합 설계가 필요함.
- 경기도 콩 생산기술 시범사업(2022-2023년)과 경기육성 콩 재배확대를 위한 상품화 지원사업(2022년)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포천콩 소비 촉진을 위한 식품산업화 관리 및 지역활성화 사업 전략이 요구됨.

## 2 연구 내용

###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2023년 경기도내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지역육성작목 발전 전략 개발연구 과제 공모를 거쳐 포천시 콩이 선정되었고 2024~2025년에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연구의 결과 활용은 향후 5년간의 계획으로 추진을 목표로 함.
- 공간적 범위: 포천시의 주요 콩 생산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비교 대상지역으로 충남 당진시를 현장 방문 조사, 문헌, 인터넷자료, 그리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내용적 범위는 아래와 같이 요약함.
  - 콩 산업의 여건 변화 및 콩 식품류 소비 행태 분석
  - 포천시 콩 생산, 품질, 수매 등 주요 이슈 분석
  - 포천콩 생산, 수확, 저장, 유통, 가공 등 가치사슬 분석
  - 기후변화 대응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신제품 도입 방안
  - 비교대상지역 대비 도입해야 할 부문별 추진 과제
  - 학교급식용 친환경 콩 생산과 두부 제조 참여 방안
  - 포천시 지역관광 자원을 연계한 콩 산업 발전 과제
  - 포천콩 생산 유통 연계를 위한 융복합 사업과제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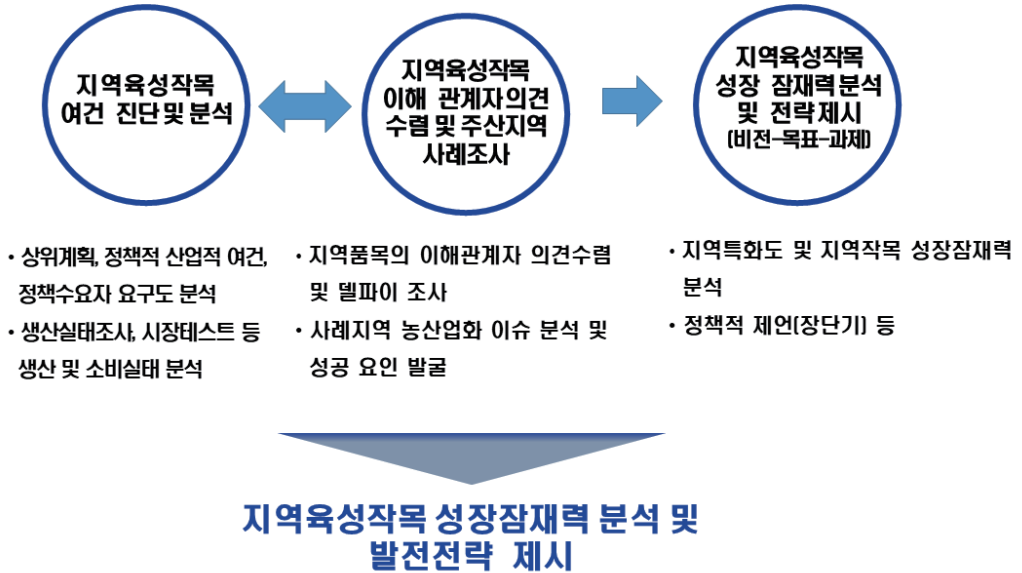
### 2) 연구의 방법

- 연구 및 조사 방법
  - 문헌조사: 국내 문헌조사를 통해 콩의 트렌드 및 주요 이슈 정리
  - 통계분석: 관련 생산 및 소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국내외 콩산업의 동향 분석
  - 직접조사: 농가, 소비자, 유통전문가를 대상으로 생산, 유통, 소비 등 면접조사 분석
- 전문가 델파이조사: 콩산업의 발전 방향 수립 및 주요 과제 도출을 위해 관련 전문가 초청 협의회 및 인터뷰를 통해 아이디어 등 의견 조사

### 3) 연구개발 추진 체계

- 콩과 관련된 산업동향 진단 및 분석과 함께 포천시 지역여건 기반으로 한 생산, 출하, 상품화, 유통, 소비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하고 비교대상지역 주산지의 사례조사를 통해 일련의 연구를 추진하였음.

- 포천시 콩의 지역육성작목 발전 전략과 분야별 추진 과제 도출을 위해 관련 전문가 초청 협의회, 델파이 조사를 통해 아이디어 등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패널을 통한 신선콩, 콩 가공식품류 소비 선호도 분석, 비교대상 주산지의 성장사례 등을 각각 분석하였음.





# I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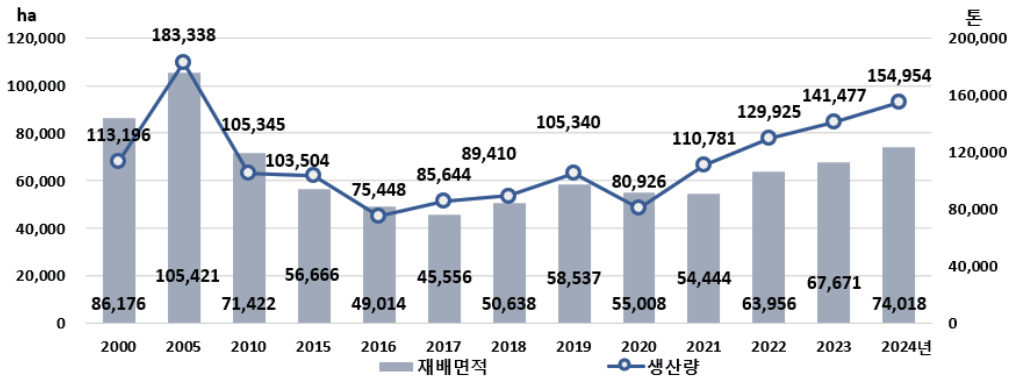
국내 콩 생산 및  
시장동향

# 02

## 콩 생산 및 시장동향

### 1 콩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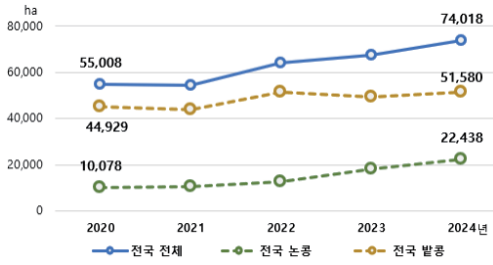
- 국내 콩 생산동향을 2000년대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5년 생산량과 재배면적이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4년에는 155천 톤을 기록함.
  - 2005년 재배면적 105천 ha, 생산량 183천 톤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 75천 톤의 최저 수준을 보였음.
  - 2021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생산량은 2024년 155천 톤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전국 콩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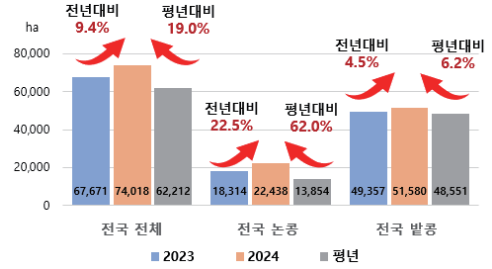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KOSIS), 농작물 생산조사

- 논콩과 발콩의 재배면적 변화를 그래프로 보면(그림 2) 논콩은 꾸준히 상승하여 2024년 22,438ha로 2016년 대비 5배 늘었고, 발콩 재배는 51,580ha로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2> 전국 콩 재배면적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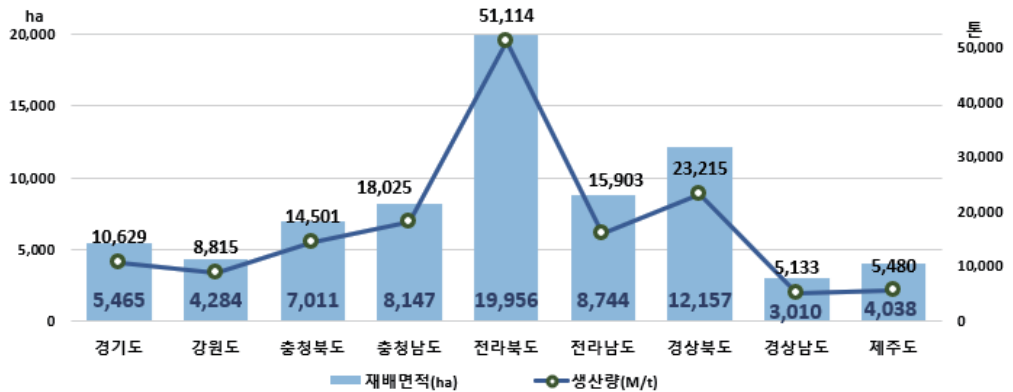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KOSIS)



<그림 3> 발콩 및 논콩 재배면적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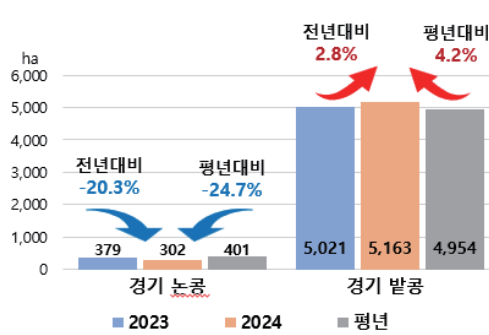
- 2024년 기준 전국에서 콩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으로 20천 ha 면적에서 51천 톤을 생산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북, 충남, 전남, 충북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4> 지역별 콩 재배면적 및 생산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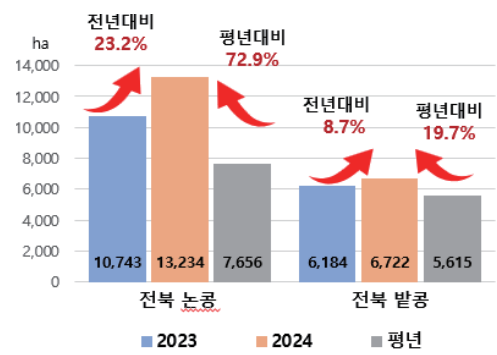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KOSIS), 농작물 생산조사

- 특히 전북,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논콩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전북지역 논콩은 전년대비 23.2%, 평년 대비 72.9% 증가, 전남지역 논콩 전년대비 61.5%, 평년 대비 114.9% 증가함.
- 그러나 경기지역의 논콩 재배는 전년대비 20.3%, 평년 대비 24.7%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5> 경기도 콩 재배면적의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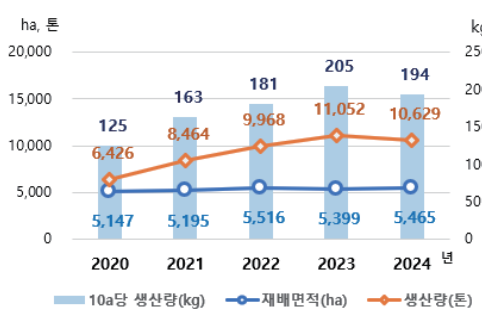


<그림 6> 전북지역 콩 재배면적의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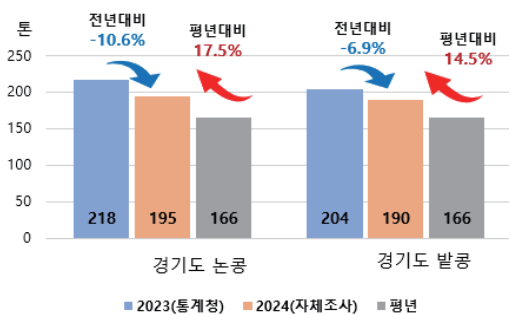
● 경기도 및 타지역 콩 생산량 및 생산성 변화

- 2024년 경기도 콩 재배면적 5,465ha로 전년 대비 1.2%, 평년 대비 2.1%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10,629톤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 평년 대비 9.7% 증가하였음.
- 경기도 논콩의 10a당 수확량은 전년 대비 10.6% 감소하고 밭콩은 전년 대비 6.9% 감소함.
- 전북지역 논콩 10a당 수확량은 전년 대비 27.8%, 평년 대비 25.6% 증가하였으나 밭콩은 전년·평년 대비 모두 24% 이상 감소하였음.
- 전남지역 논콩 10a당 수확량은 전년 대비 11.7%, 평년 대비 32.4% 증가하였으나 밭콩은 전년 대비 7.1% 감소, 평년 대비 5.8%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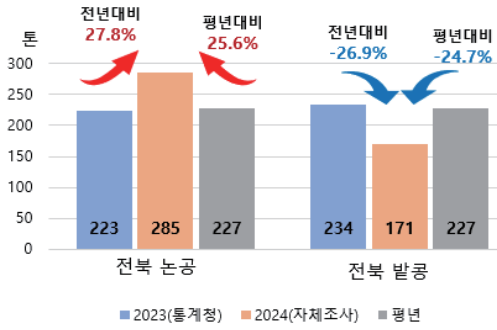
<그림 7> 경기도 콩 생산 변화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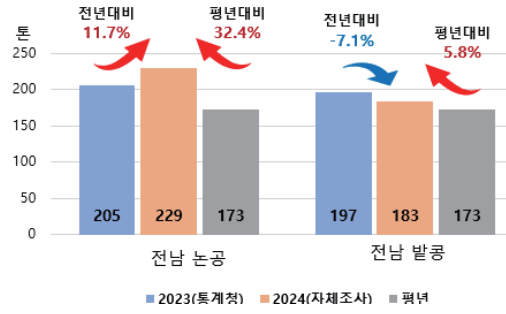
<그림 8> 경기도 10a당 수확량의 변화

출처: 시군센터 자체조사



<그림 9> 전북 10a당 수확량의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KOSIS), 시군센터 자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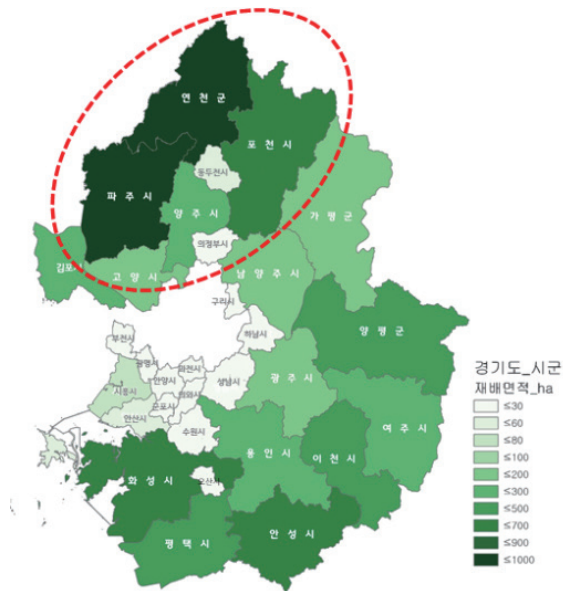


<그림 10> 전남 10a당 수확량의 변화

자료: 국가데이터처, 시군센터 자체조사

## 가. 경기도 및 주요 시군별 생산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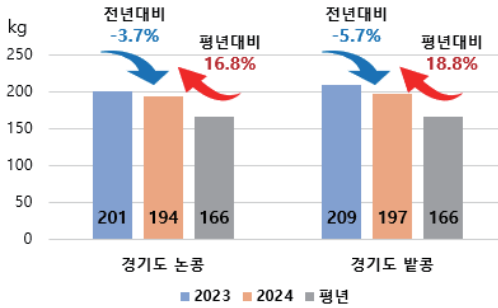
- 경기도 시군별 생산량 증감률 및 특이점
  - 2024년 파주, 연천, 포천 등 3개 시군의 콩 재배면적은 2,795.6ha로 경기도의 51.8%, 생산량은 4,838.5톤 으로 45.6%를 차지함.
  - \* 경기도원 조사결과로 국가데이터처와 일부 불일치함.



<그림 11> 경기도 콩 재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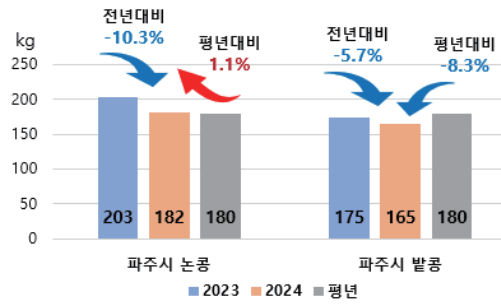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2022

- 10a당 수확량은 파주시 논콩은 전년 대비 10.3% 감소, 평년 대비 1.1% 증가하였으나 밭콩은 전년·평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음.
- 2024년 연천군과 포천시의 10a당 수확량은 논콩과 밭콩 모두 전년·평년 대비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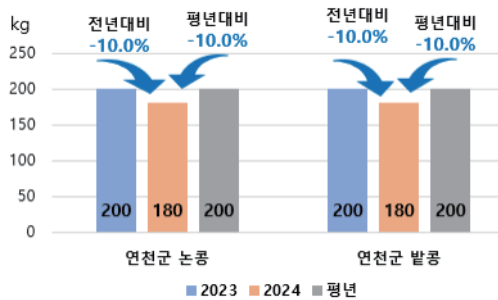
<그림 12> 경기도 10a당 콩 수확량의 변화

출처: 시군센터 자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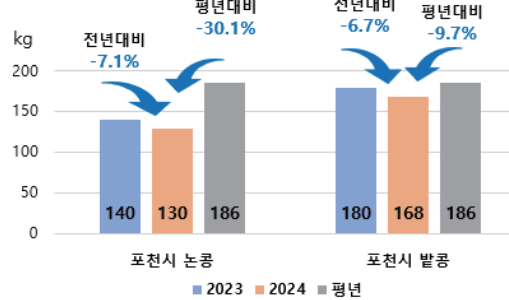
<그림 13> 파주시 10a당 콩 수확량의 변화

출처: 시군센터 자체조사



<그림 14> 연천군 10a당 콩 수확량의 변화

출처: 시군센터 자체조사



<그림 15> 포천시 10a당 콩 수확량의 변화

출처: 시군센터 자체조사

## 나. 경기북부지역 이상기후와 콩 생산성 영향

### 1) 최근 이상기후와 생산성 영향

- 경기북부지역의 2024년 기상은 8월 가뭄 이후 고온이 이어지는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콩 착함기 토양수분 부족이 심화되면서 수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됨.
- 경기도는 논콩 생산성은 전년 대비 3.7%, 밭콩은 5.7% 감소한 반면, 평년 대비 생산성은 각각 16.8%,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천은 논콩과 밭콩 모두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하여 가뭄 피해 영향이 큰 지역으로

분석됨. 포천 역시 논콩 생산성이 크게 감소하는 등 피해가 나타난 반면, 이천은 전년 대비 감소폭이 작아 안정적인 생산성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

<표 1> 경기도 시군별 수확량 증감률 비교

지역	논콩 생산성 전년 증감	밭콩 생산성 전년 증감	논콩 평년 대비	밭콩 평년 대비	비고
경기도	-3.7%	-5.7%	16.8%	18.8%	실적은 양호하나 전년 대비 감소 존재
파주시	-10.3%	-5.7%	1.1%	-8.3%	밭콩도 뚜렷한 수량 감소 있음
연천군	-10.0%	-10.0%	-10.0%	-10.0%	가뭄 피해 명확
포천시	-7.1%	-6.7%	-30.1%	-9.7%	논콩 피해 극심
이천시	-2.0%	0%	0%	-6.0%	안정적

-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형 조절, 기후 적응형 품종 도입, 재해 대응 시범사업 확대, 정책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함.
- 경기북부지역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논콩 중심의 재배체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밭콩은 파종 시기 조절을 통해 가뭄 및 고온 시기를 회피하는 재배 전략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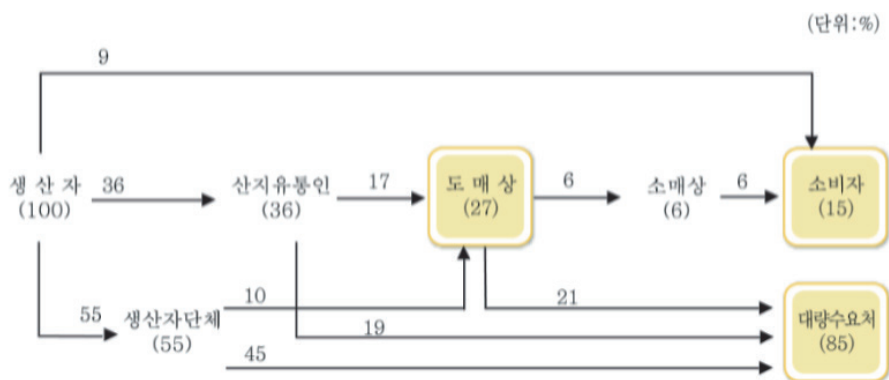
<표 2> 이상기후에 따른 콩 재배 대응 전략

분야	제언
작형 분포	경기북부는 논콩 중심으로 전환 유도, 밭콩은 시기 조절 필요
품종 전략	북부: 강풍·청자계 착형 안정성 품종 / 남부: 수량·품질 복합형 유지
재해 대응	지역별 SAWC 예측 기반 작형 재조정 시범사업 추진
지원 정책	수량 손실률 높은 지역 우선 보상, 고온·건조 피해 품종 육성 우선지원

## 2 콩 시장동향

### 가. 콩류 유통 및 소비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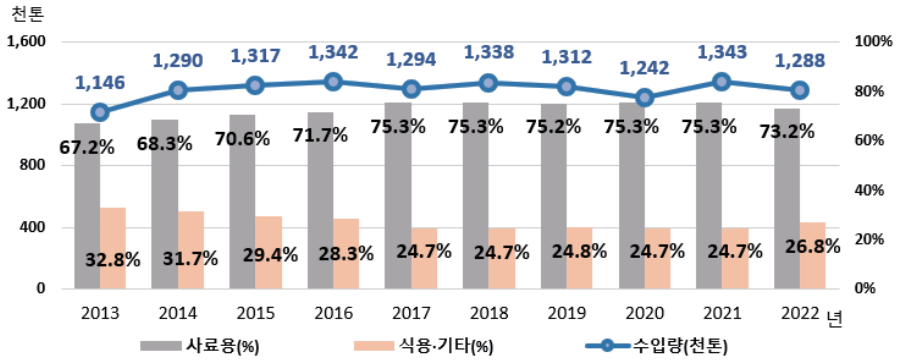
- 국산콩의 유통실태를 보면, 전체 공급량 중 약 15% 정도만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고, 85%는 두부공장, 장류업체, 콩나물공장, 두유 제조업체 등 대량 수요처에 공급되고 있음.
  - 농업인이 생산한 국산콩 중 9%는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되며, 36%는 산지유통인, 55%는 농협, 작목반, 영농조합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
  - 대량 수요처로 큰 비중의 콩이 공급되므로 콩의 품질과 가격은 대량 수요처의 기호, 요구, 수급요인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임.



<그림 16> 콩 유통경로

주) 조사지역 평균치: 제천, 안동, 김제, 무안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2 품목별 유통실태(식량작물)

- 콩 수입량 및 용도별 소비실태
  - 2022년 콩 수입량은 1,288천 톤으로 국내 콩 생산량(130천 톤)의 10배가 넘는 수준임. 용도별 소비는 전체의 73.2%가 사료용으로 이용되고 식용·기타는 26.8%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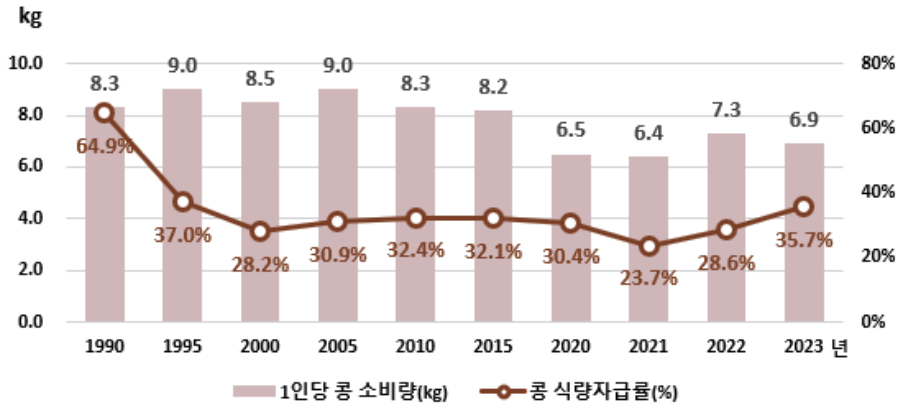


<그림 17> 콩(대두) 수입량 및 용도별 소비 실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24

● 콩 식량자급률 및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 1990년대 콩의 식량자급률은 64.9% 이었으나 2000년 28.2%로 급감하였으며 2023년에도 35.7%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인당 연간 콩 소비량은 1990년에 8.3kg이었으나 2023년 6.9kg으로 감소 추세를 형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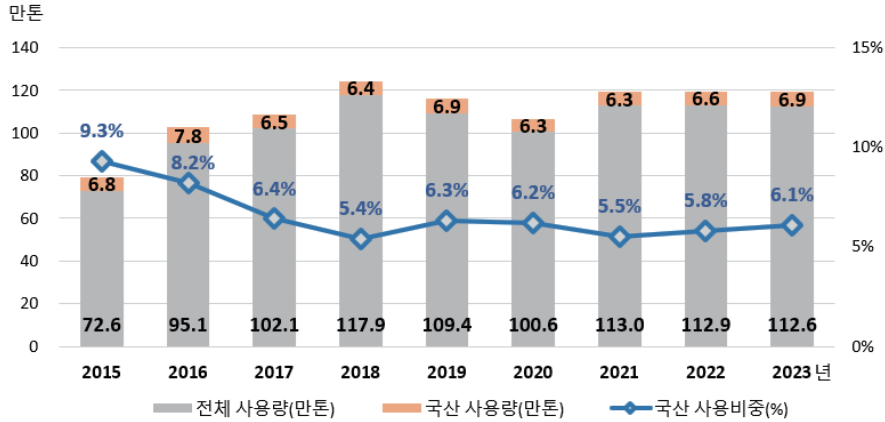
<그림 18> 콩 식량자급률 및 1인당 연간 소비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24

주) 소비량에는 사료용제외

## 나. 콩(대두)의 식품류 사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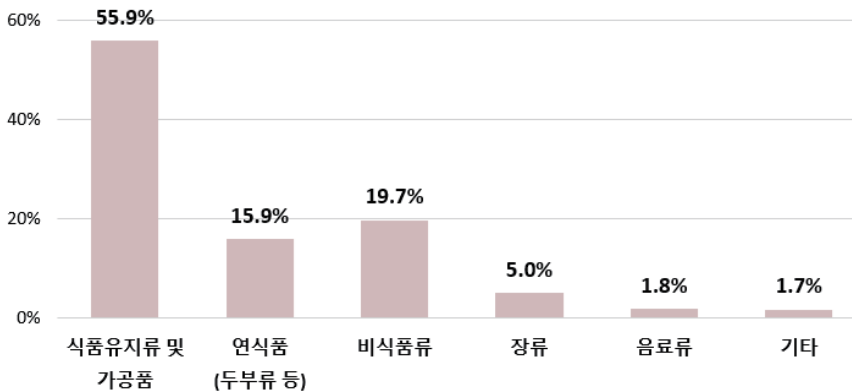
- 콩(대두)의 사용량은 증가 추세로 2015년 72.6만 톤에서 2023년 112.6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국산 사용량은 2015년 9.3%(6.8만 톤)로 미약한 수준이나 2023년은 그보다 더 적은 6.1%(6.9만 톤)로 나타남.



<그림 19> 콩(대두)의 식품류 사용량 및 국산 사용비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 콩(대두)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종류별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식품유지류 및 가공품이 55.9%로 가장 높았고 비식품류<sup>1)</sup> 19.7%, 두부류 15.9%, 장류 5.0%, 음료류 1.8%, 기타 1.7%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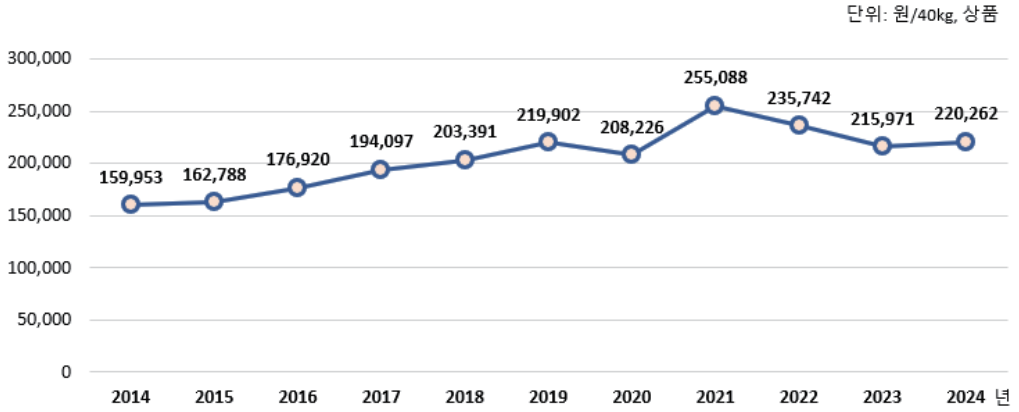
<그림 20> 콩(대두)을 이용한 주요 가공품 비중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1) 비식품류: 동물용 사료, 화장품 등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생산품 중 식품을 제외한 품목. 농림축산식품부, 2024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 다. 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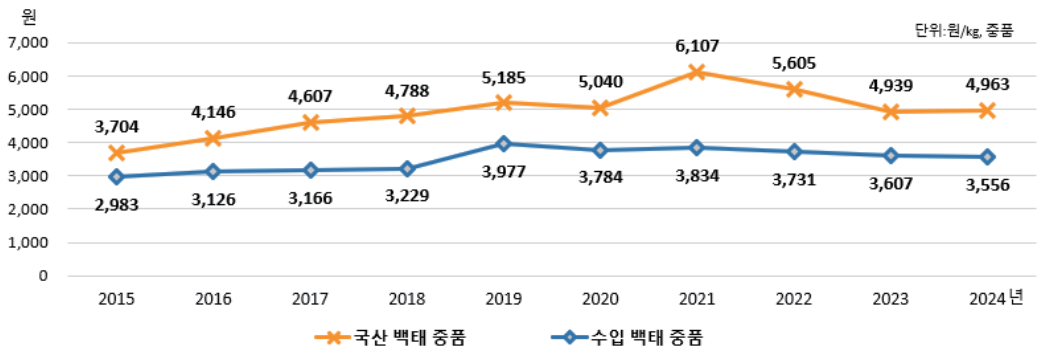
- 10년간 콩(백태) 도매가격(40kg, 상품)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59,953원에서 2021년 255,088원까지 상승한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24년 220,262원에 형성되고 있음.



<그림 21> 연도별 국산 콩(백태) 도매가격 변화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mis.or.kr](http://kamis.or.kr)

- 국산 콩과 수입산 콩의 가격 차이의 변화를 그래프로 보면 2024년 기준 국산 콩(백태)은 4,963원/kg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수입산 콩(백태)의 가격은 3,556원/kg으로 약 1,407원 상당의 가격차를 보이고 있음.



<그림 22> 국내산 콩(백태)과 수입산 콩(백태)의 가격 차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mis.or.kr](http://kamis.or.kr)

## 라. 전략작물직불제와 향후 전망

- 콩 생산과 관련된 주요 정부 정책으로 전략작물직불제와 논 이용률 제고 정책이 있음.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 감소로 쌀 가격 불안정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콩(대두), 밀, 가루쌀 등이 대표적인 전략 작물로 지정됨. 특히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이후 콩 재배 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논콩 재배가 증가하는 추세임(농업관측 '24년 4월).
- 정부는 쌀 적정 생산 조절을 위해 논콩 재배를 장려하고 있으며, 단작의 경우 ha당 200만원, 이모작과 연계할 경우 최대 350만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은 콩 재배 확대를 유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콩 생산량은 일정 기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국산 콩의 소비 촉진과 가격 안정화 대응 정책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 2025년산 전국 콩 재배 의향 면적은 논콩 중심으로 구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농업관측정보, KREI). 전체 재배면적은 약 74,015ha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논콩 면적은 26,242ha로 전년 대비 17.0% 증가하는 반면 밭콩 면적은 47,773ha로 7.4% 감소함(국가데이터처, 10.30. 발표).
- 단수는 10a당 206~208kg 수준으로 등숙률 저하와 수분함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개화기와 착엽기 생육 조건이 비교적 양호했고 논콩 면적 확대와 다수량 품종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단수 감소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2025년 콩 생산량은 약 15만2천~15만4천 톤 수준으로 전년 대비 -1.8~0.6% 범위에서 소폭 변동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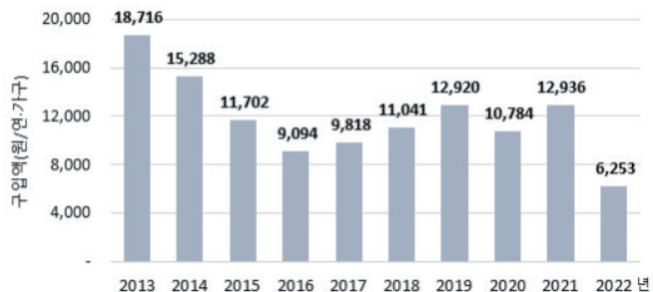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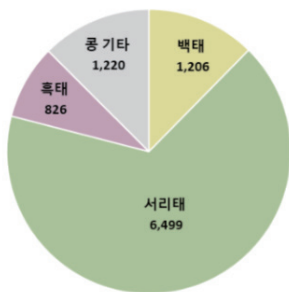
---

콩 식품류 소비트렌드  
분석

## 1 소비자 신선 콩류 구매 특성

## 가. 신선 콩류 구입액 변화

- 농촌진흥청 운영 농식품 소비정보 DB로 분석한 '13~'22년의 신선 콩류 구입액 변화는 2013년 가구당 구입액이 18,716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시기인 '19~'21년에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2년 6,253원<sup>2)</sup>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
  - '21~'23년의 콩 생산량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소비자패널 가정 내 신선 콩류 구입액은 감소하는 상반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sup>3)</sup>.
- 콩류는 백태, 서리태, 흑태, 콩 기타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입액을 비교하면 서리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콩 기타, 백태, 흑태 순으로 나타남.
  -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 아파트와 같은 주거환경을 감안할 때 가정 내 신선 콩류 구입액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



<그림 23> 신선 콩류 구입현황

자료: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DB 원자료

주 1) 콩 기타에는 병아리콩, 약콩, 렌틸콩, 쥐눈이콩, 작두콩, 풋콩 등이 있음.

주 2) 이하 데이터 분석과 그래프 작성에 적용한 수치는 최근 5개년 평균치임(단위: 원).

2)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이 2022년에 추가(700여 패널)함에 따라 과거 년도 데이터와 비교하여 경향치에서 크게 변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해석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위 경우 감소하는 추세로 해석하는 것이 저자의 판단임.

3) 콩류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정 내 소비도 많아지고 생산량이 감소하면 소비도 감소한다(2017, 농촌진흥청)는 연구결과도 있었으나, 5년 단기의 자료와 그에 따른 해석으로 차이점이 있음.

<표 3> 콩 유형별 구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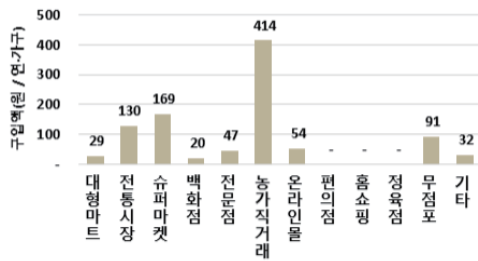
(단위: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콩	18,716	15,288	11,702	9,094	9,818	11,041	12,920	10,784	12,936	6,253
백태	2,278	1,220	1,321	1,035	1,484	1,051	993	1,111	1,189	379
서리태	11,557	9,389	5,530	3,995	4,242	6,380	7,829	5,201	7,098	3,770
흑태	2,077	1,036	873	786	715	300	842	800	585	247
콩기타	1,150	1,850	1,985	941	1,018	837	983	1,268	1,392	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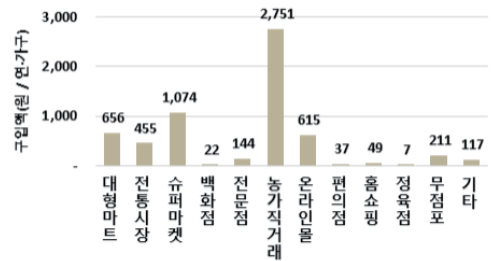
1) 구입처별 신선 콩류 구입액<sup>4)</sup>

- 가정내 콩 구입처는 백태, 서리태, 흑태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농가직거래 이었고, 그 다음으로 슈퍼마켓, 전통시장,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으로 나타났음.
- 콩 기타<sup>5)</sup>는 다른 경향으로 대형마트, 온라인몰에서 구입하는 비중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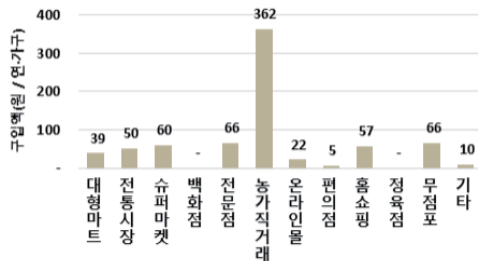
[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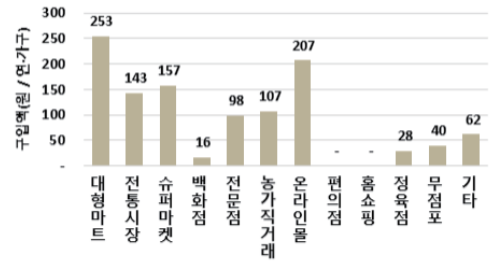
[서리태]



[흑태]



[콩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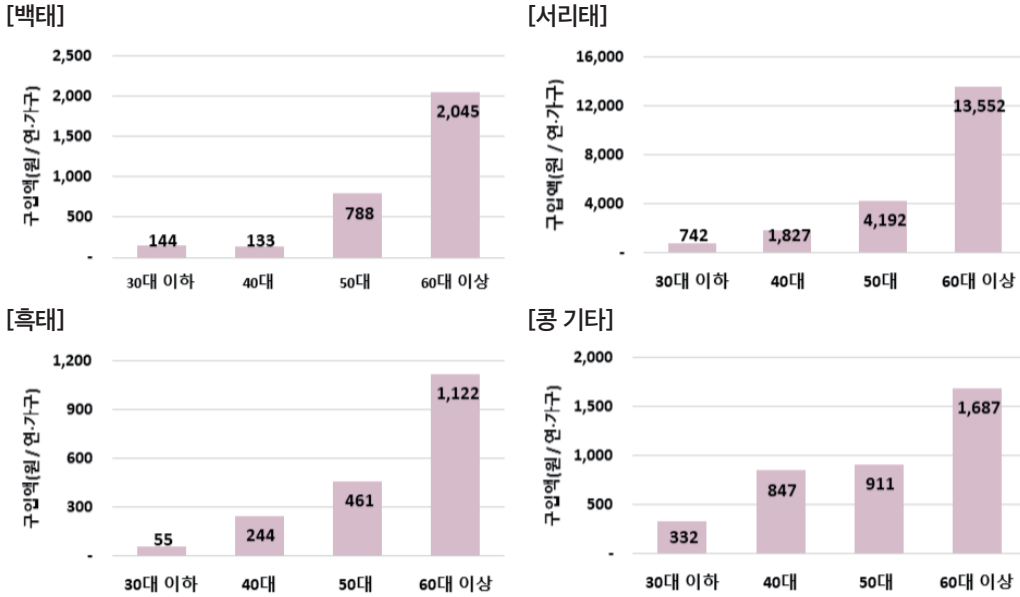
<그림 24> 구입처별 콩 구입액

4) 이하 데이터 분석과 그래프 작성에 적용한 수치는 최근 5개년 평균치임.

5) 콩 기타에는 병아리콩, 약콩, 렌틸콩, 쥐눈이콩, 작두콩, 풋콩 등이 있음.

## 2) 연령별 신선 콩류 구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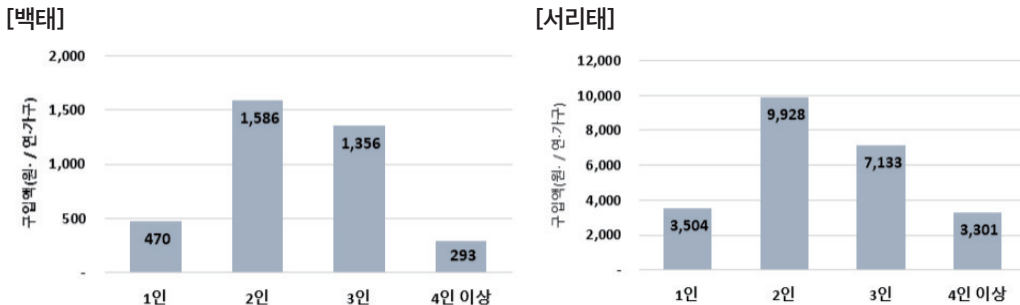
- 연령별 콩 구입액의 변화는 백태, 서리태, 흑태, 콩 기타 등 모든 종류에서 같은 경향을 보였는데 가장 현저하게 구입액이 많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이었음.
- 60대 이상의 서리태, 백태, 흑태 구입액은 다른 연령층에서 구입한 금액의 합보다 많았으며, 30대 이하의 신선 콩류 구입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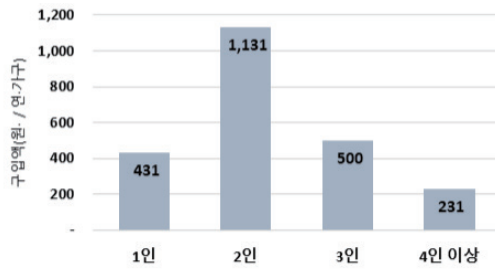
<그림 25> 연령별 콩 구입액

## 3) 가구구성원별 신선 콩류 구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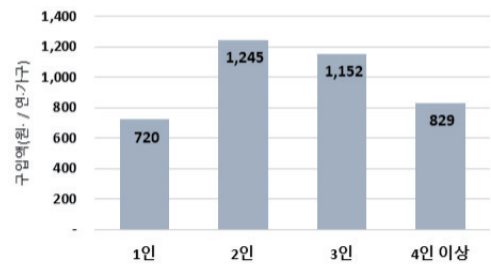
- 가구구성원별 콩 구입액은 백태, 서리태, 흑태, 콩 기타 등 모든 종류에서 2인 가구의 구입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인 이상의 가구의 콩 구입액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구성원과 연령대를 교차분석해 보면 2인 가구에서 60대 이상 비중이 유의미하게 가장 높았는데, 2인 가구는 자녀를 출가시킨 부부 구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흑태]



[콩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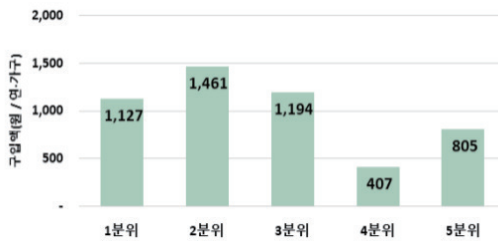


<그림 26> 가구구성원별 콩 구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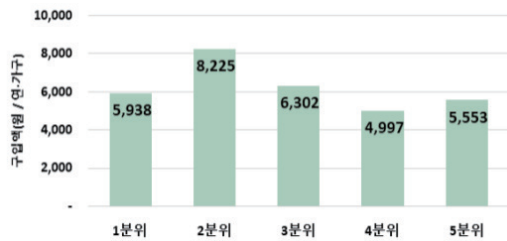
#### 4) 소득수준별 신선 콩류 구입액

- 소득수준별<sup>6)</sup> 가구당 신선 콩류 구입액은 종류별로 각기 미세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다고 구입액이 많은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음.
- 백태, 서리태, 흑태는 소득수준 2분위가 가장 많은 구입액을 보였으나 각 소득수준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콩기타는 소득수준 5분위의 구입액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2분위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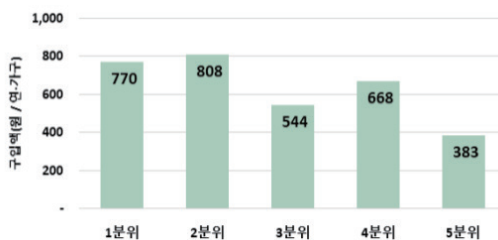
[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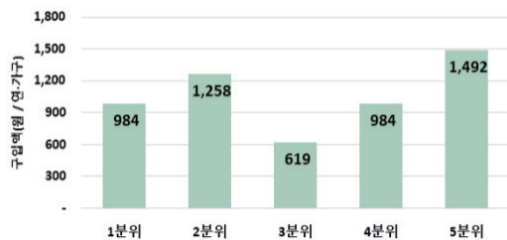
[서리태]



[흑태]



[콩기타]



<그림 27> 소득수준별 콩 구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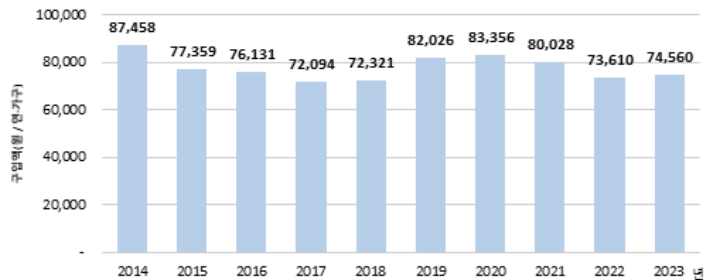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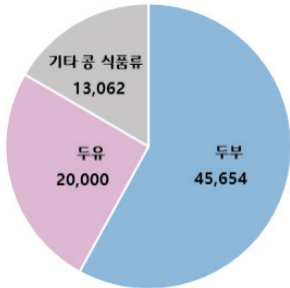
6) 소득분위 1분위-소득순위 1~20% 가구, 2분위-소득순위 20~40% 가구, 3분위-소득순위 40~60% 가구, 4분위-소득순위 60~80% 가구, 5분위-소득순위 80~100% 가구

## 2 콩 식품류 소비 실태 및 향후 구매 의향

### 가. 콩 식품류 소비실태

#### 1) 콩 식품류 종류별 구입액 변화

- 콩 식품류 구입액 변화를 최근 5개년('19~'23) 그래프로 보면 가구당 8만 원대 수준에서 정체된 경향을 보였으며 종류별 구성으로는 가구당 두부 45,654원, 두유 20,000원, 기타 콩 식품류 13,062원으로 나타났음.
- 콩 식품류 종류별 가구당 구입액 변화를 2014~2023년간 10개년 자료로 살펴보면 2014년 87,458원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는 다시 83,356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2년 7만 원대로 하락함.
  - 두부<sup>7)</sup>의 구입액이 가장 많았는데 2014년 52,846원에서 2023년 43,119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두유 구입액은 2014년 21,804원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9년 24,160원까지 구입액이 상승하였지만 2021년 이후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음.



<그림 28> 콩 식품류 종류별 구입현황

\* 최근 5개년 평균(단위: 원)

7) 국내콩 두부와 수입콩 두부의 소비 실태를 분석하고 싶었으나,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가계부 자료에 나타난 두부의 콩 원산지 구분이 매우 미약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없었음. 향후 가계부 자료에 국산과 수입산 구분이 되길 기대함.

<표 4> 가구당 콩 식품류 종류별 구입액의 변화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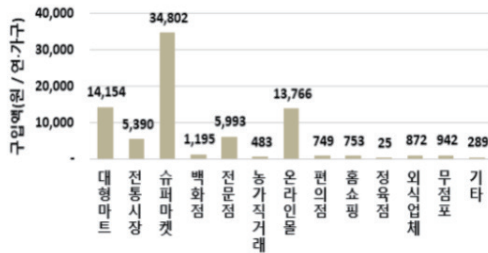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콩 식품류	87,458	77,359	76,131	72,094	72,321	82,026	83,356	80,028	73,610	74,560
두부	52,846	48,220	47,664	44,318	43,113	45,682	49,290	47,756	42,426	43,119
두유	21,804	17,682	17,409	17,707	19,303	24,160	21,931	18,847	17,729	17,332
기타 콩 식품류	12,808	11,456	11,059	10,069	9,906	12,185	12,135	13,425	13,455	14,109

자료: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DB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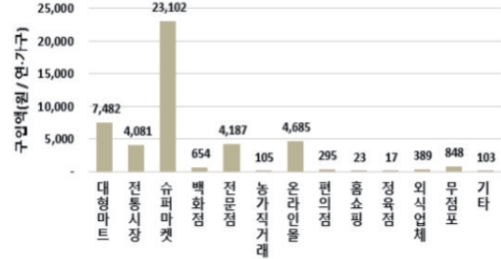
## 2) 구입처별 콩 식품류 구입액

- 가정내 콩 식품류 구입처는 두부, 두유, 기타 콩 식품류가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콩 식품류 전체로 볼 때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슈퍼마켓, 온라인몰, 대형마트 등으로 나타났다.
- 두부와 기타 콩 식품류의 구입은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의 이용이 가장 많았고 두유는 온라인몰의 구입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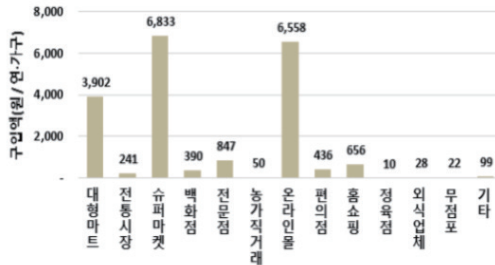
[콩 식품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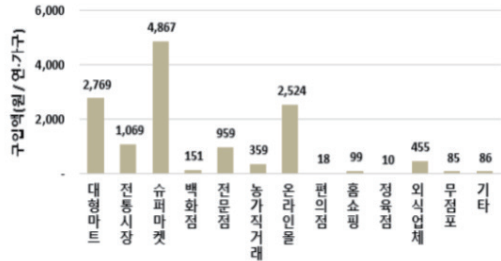
[두부]



[두유]



[기타 콩 식품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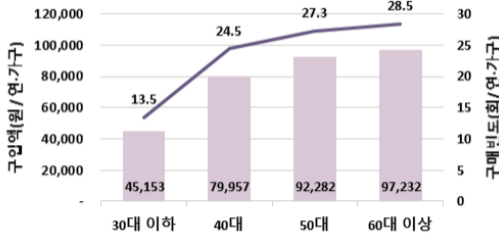


<그림 29> 구입처별 콩 식품류 구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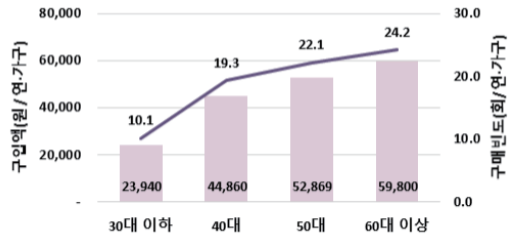
### 3) 연령별 콩 식품류 구입액

- 가정내 콩 식품류의 연령별 구입액은 콩 식품류 전반에서 60대 이상의 구입액이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의 구입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두부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가구당 구입액은 59,800원이었고, 두유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연령대는 50대로 가구당 구입액은 24,928원이었음.
- 기타 콩 식품류<sup>8)</sup>는 40대에서 가구당 15,280원을 구입한 것이 가장 큰 금액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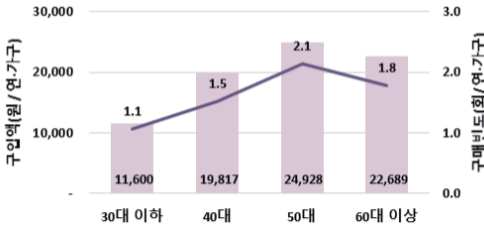
[콩 식품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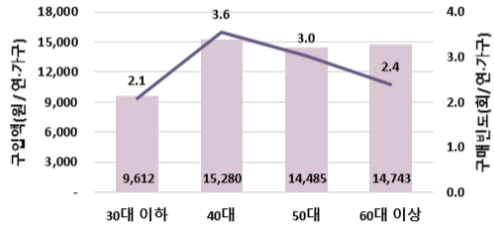
[두부]



[두유]



[기타 콩 식품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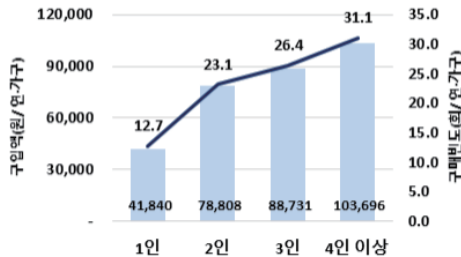


<그림 30> 연령별 콩 식품류 구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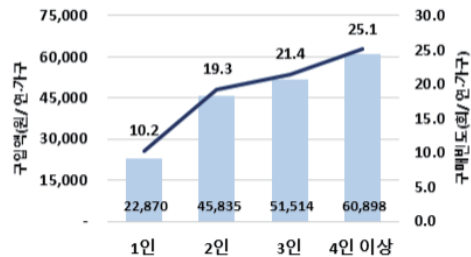
### 4) 가구구성원별 콩 식품류 구입액

- 콩 식품류의 가구구성원별 구입액은 콩 식품류 전반뿐만 아니라 두부, 두유, 기타 콩 식품류에서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4인 가구 이상의 구입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콩 식품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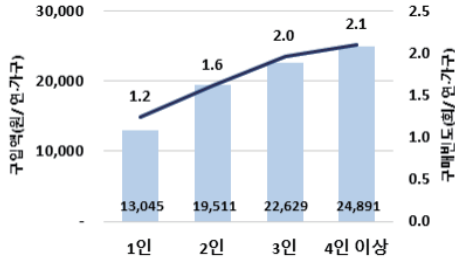


[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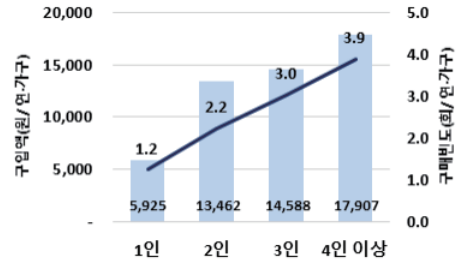


8) 2023년 기준 기타 콩 식품류의 구성으로는 유부(초밥용) > 콩물 > 두부면 > 콩비지 등의 순으로 나타남.

[두유]



[기타 콩 식품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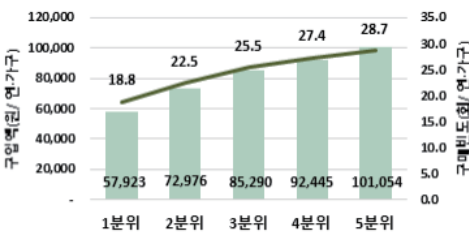


<그림 31> 가구구성원별 콩 식품류 구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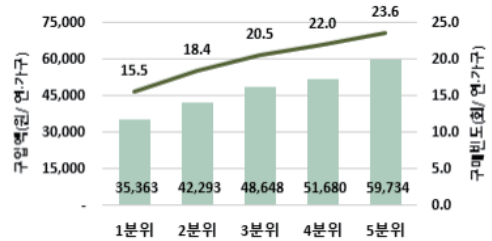
### 5) 소득수준별 콩 식품류 구입액

- 콩 식품류의 소득수준별 구입액에서 찾은 시사점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콩 식품류 구입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빈도 또한 많음을 보였음.
- 두부를 가장 많이 구입한 소득수준 5분위 가구의 두부 구입액은 59,734원으로 구매빈도는 연간 23.6회로 나타남.
- 두유를 가장 많이 구입한 소득수준 5분위 가구의 두유 구입액은 25,858원이었고 구매빈도는 연간 1.9회로 매우 낮았음.
- 기타 콩 식품류를 가장 많이 구입한 소득수준 4분위 가구의 구입액은 16,116원이었고 구매빈도는 연간 3.4회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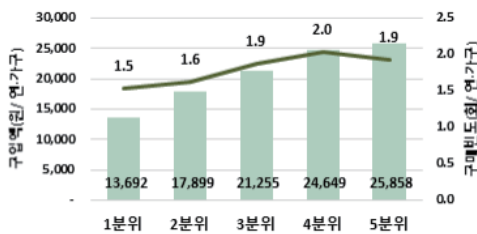
[콩 식품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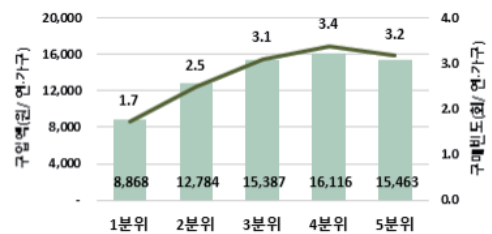
[두부]



[두유]



[기타 콩 식품류]



<그림 32> 소득수준별 콩 식품류 구입액

## 나. 콩 식품류 향후 구매 의향

-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소비자패널 대상 추가 설문조사('24. 4.) \* 513명 응답

### 1) 설문조사 참여자 특성 분석

- 콩 식품류의 다양한 종류별 소비자 구매 인식 및 향후 구매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패널을 대상으로 준비된 설문조사를 '24년 4월에 실시하였고 전체 513명이 참여하였음.
- 연령대별 가구구성원에서 30대 이하는 1인 가구, 40대와 50대는 4인 이상 가구, 그리고 60대 이상은 2인 가구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연령대별 가구구성원 수

(단위: 명, %)

	계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응답자 수	513	107	112	135	159
30대 이하	21.4	43.0	19.6	15.6	13.2
40대	28.7	27.1	17.9	28.1	37.7
50대	27.7	15.0	19.6	31.9	38.4
60대 이상	22.2	15.0	42.9	24.4	1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체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낮음

- 연령대별 월평균 식비를 교차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가구는 50만원 미만의 식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100만원 이상 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6> 연령대별 월평균 식비

(단위: 명, %)

	계	월평균 식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513	166	188	159
30대 이하	21.4	33.7	19.7	10.7
40대	28.7	25.9	25.0	35.9
50대	27.7	18.7	30.9	33.3
60대 이상	22.2	21.7	24.5	20.1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전체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낮음

- 연령대별 하루 평균 식사 횟수는 30대 이하는 1일 1식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의 가구에서는 1일 3식 이상의 식사 횟수가 유의미하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7> 연령대별 하루 평균 식사 횟수의 분포

(단위: 명, %)

	계	하루 평균 식사 횟수		
		1일 1식	1일 2식	1일 3식 이상
응답자 수	513	75	285	153
30대 이하	21.4	30.7	21.1	17.6
40대	28.7	37.3	29.5	22.9
50대	27.7	24.0	30.2	24.8
60대 이상	22.2	8.0	19.3	34.6
계	100.0	100.0	100.0	100.0

주: 전체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 낮음 ■

## 2) 현재 소비하는 콩 식품류

- 현재 소비하는 콩 식품류 중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식품은 두부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콩나물, 간장, 된장류, 두유, 콩 단백질 음료, 청국장 순이었음.
  - 연령대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청국장, 콩물은 50대와 60대 이상의 가구에서 구입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30대 이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콩기름, 비건용 콩 유제품은 50대 가구의 구입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30대 이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8> 연령대별 현재 소비하는 콩 식품류

(단위: 명, %)

	계	연령대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응답자 수	513	110	147	142	114
두부류	92.2	94.5	94.6	90.1	89.5
콩나물	83.4	79.1	82.3	85.9	86.0
간장	82.8	83.6	87.8	80.3	78.9
된장류(미소, 쌈장류)	81.5	73.6	83.7	84.5	82.5
두유(식물성 대체 우유), 콩 단백질 음료	62.8	62.7	61.9	66.2	59.6
청국장	53.6	36.4	46.9	63.4	66.7
콩기름	43.9	30.9	40.1	52.1	50.9
두부면(면류)	34.1	35.5	34.7	31.7	35.1
콩물	31.6	18.2	25.9	40.8	40.4

	계	연령대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비건용 콩 유제품(치즈, 버터, 요거트)	31.0	22.7	26.5	39.4	34.2
콩가루	26.3	20.0	25.9	27.5	31.6
식물성 단백질바(대두 함유)	21.2	18.2	19.0	21.1	27.2
생청국장(нат도)	20.7	19.1	19.0	17.6	28.1
콩 고기류(식물성 대체육)	7.6	9.1	6.8	8.5	6.1
템페(콩 발효식품)	3.9	3.6	2.0	2.8	7.9
계	676.6	607.3	657.1	712.0	724.6

주: 전체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 낮음 ■

### • 콩 가공식품의 생애주기별 차별화

구분	유년기 성장발달	청·장년기 단백질 보충	노년기 신체활력 증진
두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기농 수입산 대두</li> <li>단백질 11%</li> <li>콩냄새 최소화, 유기농 콩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 유기농 대두</li> <li>단백질 26g 진한 콩즙 다회 압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산 대두 100%</li> <li>칼슘106mg, PAG 18mg</li> <li>식감이 부드러워 소화가 잘됨</li> </ul>
두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당불내증 어린이</li> <li>성장발달 3대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li> <li>베타카로틴, DHA, 프리바이오틱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홈트족</li> <li>단백질 함량을 높임</li> <li>단백질, 비타민B군, 칼슘, 비타민D</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니어 두유</li> <li>칼슘, 비타민D, 베타글루칸</li> </ul>
콩식품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부봉: 소시지 두부 30%</li> <li>두부볼: 어묵 두부 15.7%</li> <li>유 부: 간식 및 도시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단백 두부바</li> <li>두부 텐더</li> <li>결두부: 두유를 냉동, 해동, 성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청국장(нат도), 청국장</li> </ul>

출처: 각 제조사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물

- 가구구성원 수와 현재 소비하는 콩 식품류를 교차분석한 결과 4인 이상의 가구에서 콩나물, 된장류, 청국장, 콩기름의 구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1인 가구는 콩나물, 간장, 된장류, 청국장, 콩기름, 콩물, 콩가루 등 구입 비중이 통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내 식사 및 요리 횟수가 적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표 9>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현재 소비하는 콩 식품류

(단위: 명, %)

	계	가구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응답자 수	513	107	112	135	159
두부류	92.2	89.7	89.3	93.3	95.0
콩나물	83.4	67.3	81.3	88.9	91.2
간장	82.8	74.8	84.8	85.9	84.3
된장류(미소, 쌈장류)	81.5	62.6	84.8	86.7	87.4
두유(식물성 대체 우유), 콩 단백질 음료	62.8	62.6	68.8	53.3	66.7
청국장	53.6	26.2	62.5	57.0	62.9
콩기름	43.9	32.7	38.4	45.2	54.1
두부면(면류)	34.1	34.6	30.4	34.1	36.5
콩물	31.6	22.4	34.8	31.9	35.2
비건용 콩 유제품(치즈, 버터, 요거트)	31.0	24.3	33.9	31.1	33.3
콩가루	26.3	16.8	31.3	28.1	27.7
식물성 단백질바(대두 함유)	21.2	15.0	23.2	24.4	21.4
생청국장(낫또)	20.7	17.8	24.1	16.3	23.9
콩 고기류(식물성 대체육)	7.6	5.6	5.4	10.4	8.2
템페(콩 발효식품)	3.9	3.7	7.1	3.7	1.9
계	676.6	556.1	700.0	690.4	729.6

주: 전체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 낮음 ■ \* 다중응답임

- 월평균 식비와 현재 소비하는 콩 식품류를 교차분석한 결과 100만원 이상 식비를 지출하는 가구에서 콩나물, 된장류, 청국장, 두부면의 구입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됨.

- 5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는 콩나물, 된장류, 청국장, 콩기름, 콩물, 생청국장 구입 비중이 통계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0> 월평균 식비에 따른 현재 소비하는 콩 식품류

(단위: 명, %)

	계	월평균 식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응답자 수	513	166	188	159
두부류	92.2	89.2	93.1	94.3
콩나물	83.4	72.3	86.7	91.2
간장	82.8	76.5	86.2	85.5
된장류(미소, 쌈장류)	81.5	69.3	84.0	91.2
두유(식물성 대체 우유), 콩 단백질 음료	62.8	59.6	64.9	63.5
청국장	53.6	42.2	54.3	64.8
콩기름	43.9	32.5	47.9	50.9
두부면(면류)	34.1	27.1	33.5	42.1
콩물	31.6	22.9	36.2	35.2
비건용 콩 유제품(치즈, 버터, 요거트)	31.0	25.3	35.1	32.1
콩가루	26.3	21.7	25.5	32.1
식물성 단백질바(대두 함유)	21.2	16.3	21.8	25.8
생청국장(낫또)	20.7	14.5	21.3	26.4
콩 고기류(식물성 대체육)	7.6	8.4	7.4	6.9
템페(콩 발효식품)	3.9	4.2	4.3	3.1
계	676.6	581.9	702.1	745.3

주: 전체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 낮음 ■ \* 다중응답임

- 하루 평균 식사 횟수와 현재 소비하는 콩 식품류를 교차분석한 결과 1일 3식 이상 가구는 콩나물, 두부면, 식물성 단백질바, 생청국장(낫또)의 구입 비중이 높았음.
- 1일 1식의 가구는 콩나물, 된장류, 두유, 비건용 콩 유제품, 생청국장(낫또) 구입 비중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내 식사 및 요리 횟수가 적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표 11> 하루 평균 식사 횟수에 따른 현재 소비하는 콩 식품류

(단위: 명, %)

	계	하루 평균 식사 횟수		
		1일 1식	1일 2식	1일 3식 이상
응답자 수	513	75	285	153
두부류	92.2	89.3	92.6	92.8
콩나물	83.4	73.3	82.5	90.2
간장	82.8	81.3	81.1	86.9
된장류(미소, 쌈장류)	81.5	72.0	81.4	86.3
두유(식물성 대체 우유), 콩 단백질 음료	62.8	46.7	64.2	68.0
청국장	53.6	50.7	50.2	61.4
콩기름	43.9	37.3	41.4	51.6
두부면(면류)	34.1	30.7	30.2	43.1
콩물	31.6	28.0	28.4	39.2
비건용 콩 유제품(치즈, 버터, 요거트)	31.0	17.3	33.7	32.7
콩가루	26.3	20.0	24.9	32.0
식물성 단백질바(대두 함유)	21.2	16.0	18.2	29.4
생청국장(нат도)	20.7	12.0	17.2	31.4
콩 고기류(식물성 대체육)	7.6	5.3	7.4	9.2
템페(콩 발효식품)	3.9	2.7	3.2	5.9
계	676.6	582.7	656.5	760.1

주: 전체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낮음   \* 다중응답임



<그림 33> 콩 식품류

출처: 미디어데일, 푸드엔메드, 한 살림, 우리의식탁, 위키백과, 오아시스마켓, 드 그라쎄, 유튜브 여우별식탁, 헬스조선

### 3) 향후 구매를 늘리고자 하는 콩 식품류

- 소비자패널 중 513명이 중복으로 응답한 ‘향후 구매를 늘리고자 하는 콩 식품류’는 두부류(62.2%), 콩나물(41.3%), 간장(31.4%), 된장류(27.3%), 두유(26.3%), 청국장(23.6%) 순임.  
- 그러나 늘리고자 하는 비율은 크게 높지 않았으며, 현재 구입하고 있는 콩 식품류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 것은 꾸준히 소비하는 식품류라고 판단됨.
- ‘향후 구매를 늘리고자 하는 콩 식품류’를 연령대와 교차분석한 결과, 5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청국장, 콩기름, 콩물, 템페(콩 발효식품류)의 구매를 늘릴 의사가 유의미하게 높았음.  
- 그러나 30대 이하 연령층은 청국장, 콩기름, 비건용 콩 유제품, 생청국장, 콩 고기류의 구입을 늘릴 의사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2> 구매를 늘릴 의사가 있는 콩 식품류

(단위: 명, %)

	계	연령대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응답자 수	513	110	147	142	114
두부류	62.2	58.2	62.6	61.3	66.7
콩나물	41.3	33.6	43.5	45.1	41.2
간장	31.4	24.5	37.4	25.4	37.7
된장류(미소, 쌈장류)	27.3	24.5	21.1	31.7	32.5
두유(식물성 대체 우유), 콩 단백질 음료	26.3	27.3	28.6	28.2	20.2
청국장	23.6	9.1	19.7	28.2	36.8
콩기름	18.9	11.8	17.7	19.0	27.2
두부면(면류)	18.7	17.3	15.6	19.0	23.7
콩물	17.5	12.7	14.3	18.3	25.4
비건용 콩 유제품(치즈, 버터, 요거트)	13.6	7.3	13.6	14.1	19.3
콩가루	11.5	9.1	11.6	9.9	15.8
식물성 단백질바(대두 함유)	10.1	8.2	10.2	10.6	11.4
생청국장(낫토)	8.2	3.6	7.5	8.5	13.2
콩 고기류(식물성 대체육)	7.2	1.8	11.6	7.7	6.1
템페(콩 발효식품)	4.7	4.5	1.4	4.2	9.6
계	322.6	253.6	316.3	331.0	386.8

주: 전체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낮음   \* 다중응답임

- 향후 콩 식품류 구매를 늘리고자 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 결과로 가장 많이 선택한 문항은 ‘건강유지 및 근력강화를 위해서’가 44.6%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 ‘비만예방 및 체중조절을 위해서’가 17.9%, ‘평소에 자주 먹던 식품이므로’ 17.2%이었음.

- '건강유지 및 근력강화를 위해서'로 구매를 늘릴 콩 식품류는 콩물, 생청국장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비만예방 및 체중조절을 위해서' 구매를 늘릴 콩 식품류는 두부면, 콩 고기류 등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3> 콩 식품류별 향후 구매를 늘릴 의사가 있는 이유

(단위: 명, %)

	계	향후 구매를 늘릴 의사가 있는 것						
		두부류	두유, 콩 단백질 음료	콩물	콩나물	간장	된장류 (미소, 쌈장류)	청국장
응답자 수	513	319	212	90	161	59	97	121
건강유지 및 근력강화를 위해서	44.6	46.4	50.9	54.4	41.0	47.5	45.4	52.1
비만예방 및 체중조절을 위해서	17.9	13.8	14.2	14.4	12.4	10.2	9.3	14.0
평소에 자주 먹던 식품이므로	17.2	21.3	17.0	16.7	23.0	25.4	27.8	20.7
식사준비 및 섭취 시까지 편리함을 고려해서	11.3	10.3	10.8	8.9	9.3	5.1	6.2	3.3
가족의 전통적 식단을 위해서	3.1	3.8	1.4	1.1	5.0	6.8	8.2	5.8
합리적인 가격을 고려해서	2.9	2.5	2.4	1.1	5.6	-	2.1	2.5
비건 식품을 선호해서	2.3	1.9	3.3	1.1	3.1	5.1	1.0	0.8
기타	0.6	-	-	2.2	0.6	-	-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향후 구매를 늘릴 의사가 있는 것							
	생 청국장 (낫또)	콩기름	콩가루	두부면 (면류)	콩 고기류 (식물성 대체육)	템페 (콩 발효 식품)	콩 유제품 (치즈, 버터, 요거트)	식물성 단백질바 (대두 함유)
응답자 수	96	37	42	135	70	24	140	52
건강유지 및 근력강화를 위해서	57.3	51.4	54.8	46.7	50.0	50.0	44.3	51.9
비만예방 및 체중조절을 위해서	20.8	10.8	4.8	31.1	28.6	25.0	18.6	23.1
평소에 자주 먹던 식품이므로	9.4	18.9	23.8	9.6	10.0	16.7	17.1	13.5
식사준비 및 섭취 시까지 편리함을 고려해서	3.1	5.4	11.9	7.4	1.4	-	13.6	5.8
가족의 전통적 식단을 위해서	2.1	8.1	4.8	0.7	-	4.2	0.7	1.9
합리적인 가격을 고려해서	2.1	2.7	-	-	1.4	-	1.4	-
비건 식품을 선호해서	3.1	2.7	-	3.7	8.6	4.2	4.3	3.8
기타	2.1	-	-	0.7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체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빨간색) 낮음 (파란색)

#### 4) 향후 구매를 줄이고자 하는 콩 식품류

- 소비자패널 중 512명이 중복으로 응답한 ‘향후 구매를 줄이고자 하는 콩 식품류’는 두부류(33.4%), 콩나물(15.2%), 간장(14.5%), 된장류(12.9%), 두유(10.0%), 청국장(9.8%), 콩기름(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줄이고자 하는 비율은 대체로 높지 않았음.
- 콩 식품류 중 구매를 줄이고자 하는 선택이 가장 많았던 두부류를 연령대와 교차분석한 결과 50대와 60대의 연령층에서 줄이고자 하는 의사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30대 이하와 40대의 연령층에서는 줄이고자 하는 의사가 낮게 나타났음.
- 소비자들의 콩 식품류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의사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콩식품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표 14> 향후 구매를 줄이고 싶은 의사가 있는 콩 식품류

(단위: 명, %)

	계	연령대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이상
응답자 수	512	110	146	142	114
두부류	33.4	18.2	22.6	45.1	47.4
콩나물	15.2	16.4	17.8	11.3	15.8
간장	14.5	14.5	14.4	13.4	15.8
된장류(미소, 쌈장류)	12.9	13.6	11.0	16.2	10.5
두유(식물성 대체 우유), 콩 단백질 음료	10.0	6.4	9.6	9.2	14.9
청국장	9.8	7.3	8.9	11.3	11.4
콩기름	8.8	10.9	6.8	8.5	9.6
두부면(면류)	7.0	6.4	3.4	8.5	10.5
콩물	6.8	11.8	6.8	5.6	3.5
비건용 콩 유제품(치즈, 버터, 요거트)	6.6	6.4	8.9	5.6	5.3
콩가루	5.3	3.6	6.2	4.9	6.1
식물성 단백질바(대두 함유)	4.3	7.3	3.4	2.8	4.4
생청국장(낫또)	3.7	2.7	6.8	0.7	4.4
콩 고기류(식물성 대체육)	2.1	1.8	1.4	2.8	2.6
템페(콩 발효식품)	0.6	-	0.7	0.7	0.9
계	141.0	127.3	128.8	146.5	163.2

주: 전체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 낮음 ■ \* 다중응답임

- 향후 콩 식품류 구매를 줄이고자 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로 가장 많이 선택한 문항은 ‘다른 대체식품으로 전환’이 33.2%로 나타났음. 그 다음은 ‘맛이 없거나 먹기에 불편해서’가 19.9%, ‘집에서 요리 시간이 줄어서’ 10.0%로 나타남.
  - ‘다른 대체식품으로 전환’의 이유로 구매를 줄일 콩 식품류는 콩기름, 식물성 단백질바 등이 유의미한 수치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맛이 없거나 먹기에 불편해서’의 이유로 구매를 줄일 콩 식품류는 콩 고기류, 생청국장(낫또) 등이 유의미한 수치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줄어서’의 이유로 구매를 줄일 콩 식품류는 간장, 된장류 등이 통계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기타 이유로는 간장은 나트륨 지양(17%), 콩기름은 다른 식물성기름 대체 및 건강을 생각해서(12%), 템페(콩 발효식품)는 생소한 음식(5%), 콩 유제품(치즈, 버터, 요거트)은 냄새가 불편(5%), 콩 식물성 대체육도 생소함(3%) 등 이었음.

<표 15> 향후 콩 식품류별 구매를 줄일 의사가 있는 이유

(단위: 명, %)

	계	향후 구매를 줄이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것						
		두부류	두유, 콩 단백질 음료	콩물	콩나물	간장	된장류 (미소, 쌈장류)	청국장
응답자 수	512	3	22	19	11	74	34	35
다른 대체식품으로 전환	33.2	-	27.3	26.3	18.2	28.4	38.2	5.7
맛이 없거나 먹기에 불편해서	19.9	-	9.1	26.3	18.2	2.7	11.8	11.4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줄어서	10.0	33.3	4.5	10.5	18.2	33.8	20.6	2.9
특유의 냄새가 불편해서	9.6	33.3	13.6	-	-	2.7	5.9	54.3
가격이 비싸서	7.0	33.3	4.5	10.5	9.1	-	2.9	5.7
영양가가 떨어져서	5.9	-	18.2	-	18.2	5.4	5.9	5.7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아서)	4.5	-	4.5	10.5	9.1	4.1	2.9	5.7
기타	10.0	-	18.2	15.8	9.1	23.0	11.8	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향후 구매를 줄이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것							
	생 청국장 (нат)	콩기름	콩가루	두부면 (면류)	콩 고기류 (식물성 대체육)	템페 (콩 발효 식품)	콩 유제품 (치즈, 버터, 요거트)	식물성 단백질바 (대두 함유)
응답자 수	66	171	27	36	78	45	51	50
다른 대체식품으로 전환	18.2	54.4	18.5	30.6	21.8	22.2	23.5	46.0
맛이 없거나 먹기에 불편해서	36.4	5.8	40.7	25.0	52.6	26.7	25.5	24.0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줄어서	3.0	10.5	11.1	8.3	1.3	6.7	7.8	2.0
특유의 냄새가 불편해서	28.8	4.7	3.7	5.6	11.5	17.8	5.9	2.0
가격이 비싸서	4.5	2.9	7.4	19.4	6.4	8.9	19.6	18.0
영양가가 떨어져서	1.5	11.1	11.1	2.8	1.3	2.2	2.0	6.0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아서)	6.1	3.5	3.7	2.8	1.3	4.4	5.9	-
기타	1.5	7.0	3.7	5.6	3.8	11.1	9.8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체 대비 유의미하게 높음 ■ 낮음 ■

## 5) 주요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국산콩 생산 증대 및 식량자급률 향상]

- 전략작물직불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 등 전략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 상태에 있는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며, 동시에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농업관측정보 2024년산 콩 재배 전망에 따르면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으로 논콩 재배의향이 34.1% 증가 등 콩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로 콩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함께 국산콩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신선 콩류 및 콩 식품류 소비트렌드]

- 가구구성원, 주거환경, 집안 내 조리문화 등 가구특성의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선 콩류의 구입액은 급감하는 추세이나, 식품 기업들은 콩을 이용한 결두부 등 두부를

이용한 식품류, 프리미엄 두유류, 대두 단백을 이용한 대체육, 두부면 등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하며 소비자의 식단에 선택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의 가계부로 본 신선 콩류 구입액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수도권 중심의 소비자패널 구성, 아파트 등 주거환경, 식문화 변화를 감안할 때 가정 내 신선 콩류 구입 감소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함.
- 이번 소비자패널이 현재 많이 소비하는 콩 식품류는 두부류, 콩나물, 간장, 된장류, 두유, 콩 단백질 음료, 청국장 순으로 소비자 연령층과 가구구성원별 구매 특성 파악에 따른 식품류 개발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특히 30대와 1인 가구의 소비층과 60대 부부와 2인 가구로 구성되는 소비층의 콩 식품류 소비 특성이 다르기에 이에 대응한 콩 식품류 개발과 접근이 요구됨.
  - 전반적으로 두부류가 콩을 이용한 식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현재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식품류이기에 두부를 이용한 제품 개발로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더불어 국산콩 소비에도 연결되기를 기대함.

#### [소비층별 다양한 콩 식품류 선택지 제공]

- 기존의 전통적인 콩 식품류를 넘어 콩을 활용한 대체육, 프리미엄 두유, 콩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간편식 제품 등을 출시하여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젊은층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미래 소비자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콩 산업을 육성해야 함.
- 콩의 다양한 활용 및 요리법을 홍보하고,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함.

#### [대체육 개발의 푸드테크 발전과 국산콩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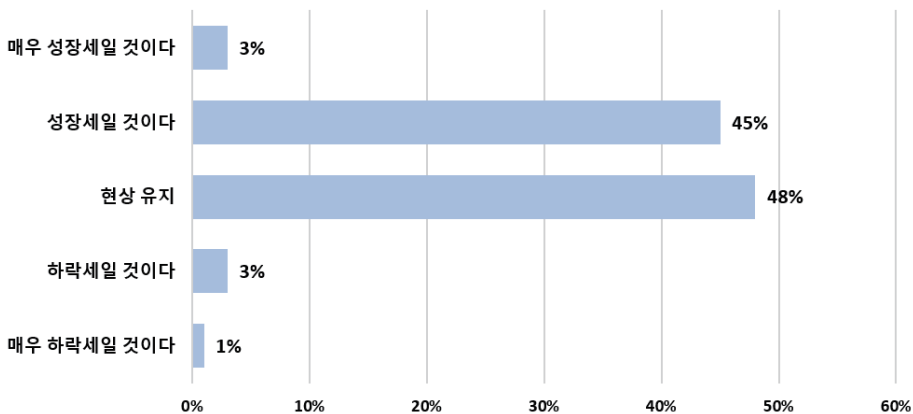
- 콩 등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한 대체육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국내 기업과 스타트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푸드테크 산업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대체육의 맛과 식감이 전통적인 육류의 맛과 질감을 재현하지 못하며, 대체육에 사용되는 첨가물이나 가공 과정에 불안감이 있다고 평가함.
- 이번 소비자패널 설문조사 결과도 콩 등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한 대체육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이 아직 높지 않고 향후 줄이고자 하는 의향도 일부 확인함.
  - 푸드테크 산업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만, 소비자의 맛과 건강을 사로잡기 위한 기술의 발전과 식품기업들의 국산콩 이용으로 이어지기를 바램.

### 3 공즙에 대한 소비자 반응 조사 결과

- 본 조사는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응답자는 30대 미만 30%, 30대-40대 49%, 50대 이상 21%로 구성되었으며 거주지는 서울 55%, 광역시 26%, 경기도 8%, 기타 시도 11%로 나타남. 가구 구성은 4인 이상 36%, 3인 26%, 2인 18%, 1인 20% 순으로 나타나 중대형 가구 비중이 비교적 높은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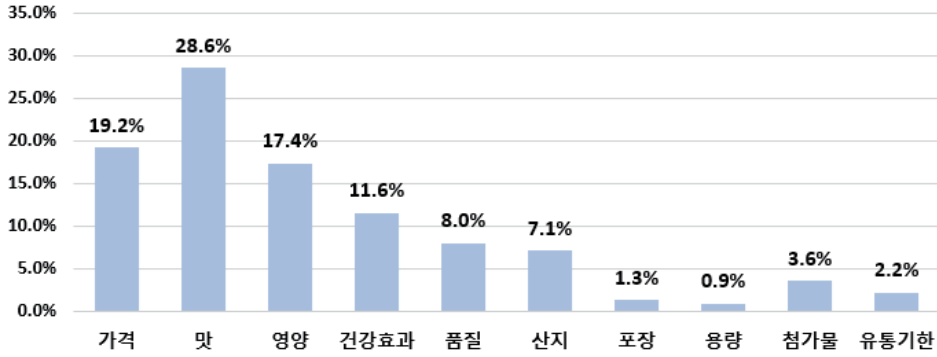
구분	연령대			거주지				동거 구성			
	30대 미만	30대-40대	50대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기타 시도	1인	2인	3인	4인 이상
비율 (%)	30	49	21	55	26	8	11	20	18	26	36

- 콩물 또는 공즙 제품에 대한 평가 결과 질감은 ‘적당히 부드럽다’는 응답이 74.7%로 가장 높았고, 농도도 ‘적당히 진하다’는 응답이 72.4%로 나타남. 향과 맛에 대해서는 각각 ‘고소하다’는 평가가 65.5%와 78.2%로 나타나 전반적인 제품 품질 평가는 긍정적인 수준임.
- 전체 제품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54.0%로 가장 높았으며, 공즙(콩물) 산업의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 48%가 높은 성장세를 예상함.
- 공즙(콩물) 산업 높은 성장세를 예상하는 것이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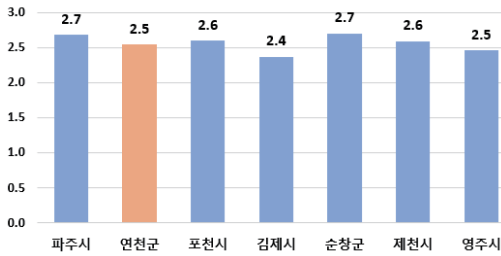
<그림 34> 공즙 또는 콩물 관련 제품 산업 성장세

- 공즙 제품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맛, 가격, 영양, 건강효과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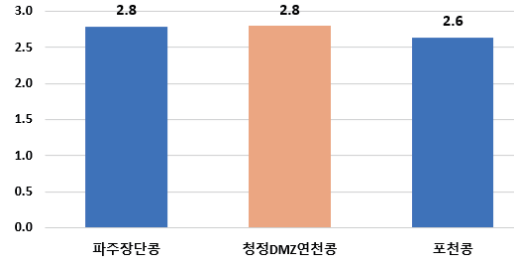
<그림 35> 꿀잼 또는 꿀물 제품 구입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 지역 꿀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는 '청정 DMZ 연천꿀'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6> 국내 주요 꿀 산지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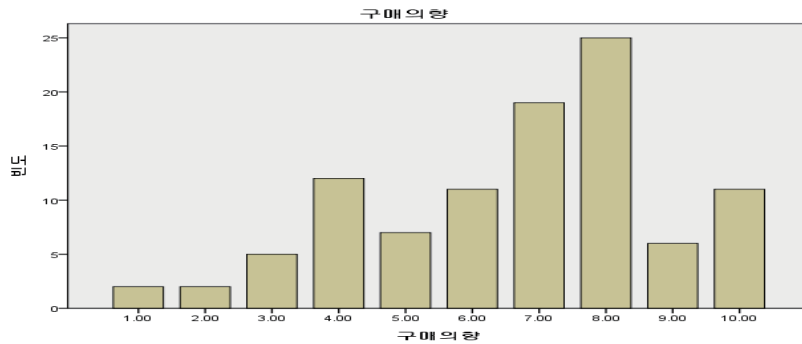
주: 5점 리커트 척도



<그림 37> 경기 북부지역 꿀 브랜드 인지도

주: 5점 리커트 척도

- 포천 가래울영농조합의 '마시는 꿀잼' 제품에 대한 구매 의향 조사에서는 평균 6.67점(10점 기준), 중위수 7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구매 의향을 보임. 응답자들은 '국산 꿀 100% 사용'과 '첨가물 무첨가' 정보를 주요 장점으로 인식하였으며, 선택 이유로는 첨가물 무첨가(3.77점), 포장 패키지, 생산지, 색깔 순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8> 가래울영농조합 생산 꿀잼(물)에 대한 소비자 응답자 구매의향

- 해당 제품에 대한 지불 의사 금액은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5,000원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지불 의사는 5,711원으로 조사되어 현재 시판 가격(900ml 기준 약 5,400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임. 이는 건강성과 원료 신뢰도가 소비자의 가격 수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됨.

<표 16> 가래울영농조합 생산 콩즙(물)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 금액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래울 콩물	1,000원	15,000원	5,711.46	3,016.197

- 콩 활용 제품(콩물/콩즙)은 건강과 맛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건강이 가장 높은 점수(3.91)로, 가격은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임. 이를 콩물 사업 타겟층 설정과 제품 개발, 마케팅에 적용해 볼 때, 기능성 표시제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콩물은 성장기 영양분 공급이 필요한 계층과 고령층을 타겟으로 설정하고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특유의 비릿한 향과 맛으로 소비력이 높은 계층은 거부감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한 맛을 늘리고 간편하게 휴대 및 1회 사용량을 고려한 패키지 운영을 통해 소비계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콩물이 단순히 콩국수를 만드는 재료를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임.

## 가. 콩즙에 대한 소비자 반응 조사 결과 시사점

- 콩즙 및 콩물 제품은 건강성과 맛을 중심으로 한 제품 전략이 필요함. 조사 결과 소비자 선택 요인에서 건강 관련 요소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 기능성 표시제 도입 등 건강 가치를 강조한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이 요구됨.
- 현재 콩물 제품은 성장기 아동이나 고령층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으나 특유의 비린 향과 맛으로 인해 청년 및 중장년층의 소비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한 풍미 강화와 함께 휴대성과 1회 섭취 편의성을 고려한 소포장 제품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콩물이 콩국수용 식재료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적인 음료 형태로 소비될 수 있도록 제품 다양화를 추진해야 하며, 콩을 활용한 먹거리 확대와 브랜드 전략을 연계하여 지역 콩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콩 생산과 가공·외식·관광 산업을 연계한 중장기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지자체 차원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요구됨.

# IV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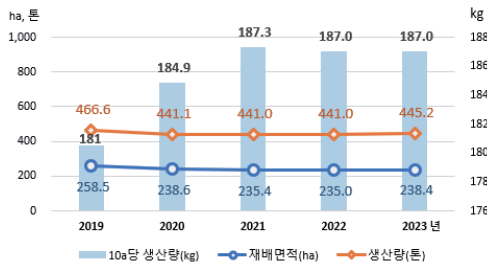
포천시 콩 생산 및  
유통 실태

# 04

## 포천시 콩 생산 및 유통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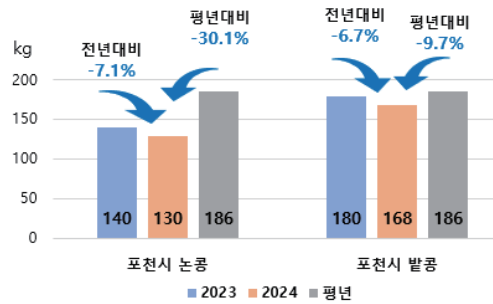
### 1 포천시 콩 생산동향

- 2023년 포천시 콩 재배면적은 238.4ha로 2019년 대비 7.8%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445.2톤으로 같은 기간 4.6% 감소함. 이는 재배 기반의 정체와 생산성 변동이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안정화 전략이 요구됨.
- 10a당 수확량은 논콩이 전년 대비 7.1%, 평년 대비 30.1% 감소하였고, 밭콩은 전년 대비 6.7%, 평년 대비 9.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특히 논콩의 평년 대비 감소폭이 커, 기상 변동(가뭄·고온 등)에 따른 피해가 생산성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임을 시사함.



<그림 39> 포천시 콩 생산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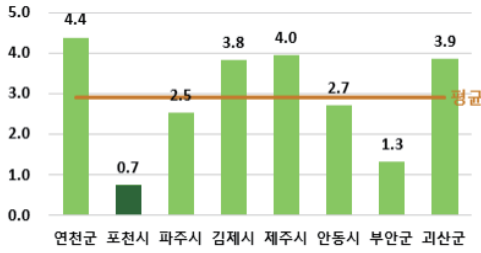
출처: 국가데이터처('23-'24 시군 자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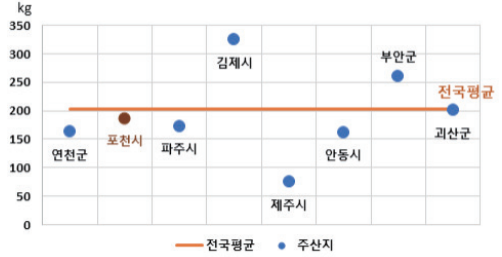
<그림 40> 포천시 10a당 콩 생산성

출처: 시군센터 자체조사

- 주요 콩 주산지역의 평균 특화계수는 2.9 수준이며, 연천군(4.4), 괴산군(3.9), 김제시(3.8)에 비해 포천시(2021년 0.7)는 특화수준이 낮은 편임. 이는 포천시가 '전국 콩 주산지형 구조'라기보다, 지역 내 수요·유통과 결합한 틈새 전략이 적합한 지역임을 의미함.
- 2021년 기준 주산지 간 10a당 생산량을 비교하면 김제시, 부안군, 괴산군이 상대적으로 높고, 포천시는 중간권 수준으로 나타남. 즉 포천은 생산량 경쟁보다 품질·용도(가공·급식)·브랜드와 같은 차별화 요인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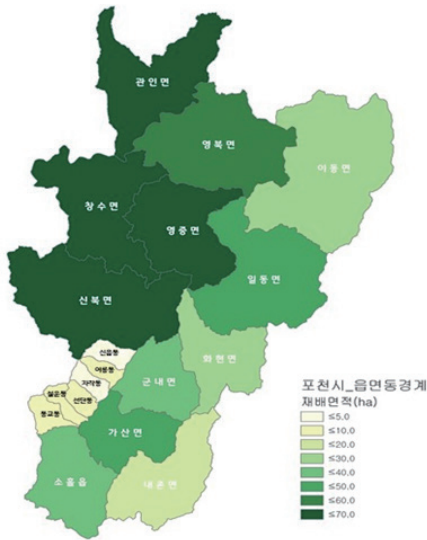


<그림 41> 콩 주산지별 특화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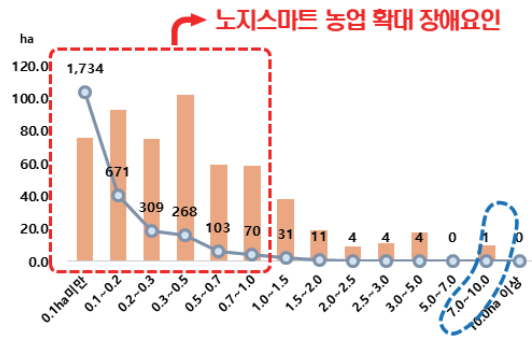
<그림 42> 콩 주산지의 10a당 생산량 비교(2021년 기준)

- 포천시 읍면동별 콩 재배면적 분포는 관인면, 창수면, 영중면, 신북면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공간적 집중은 단지화 잠재력을 제공하지만, 실제 단지화·기계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규모화와 조직화가 전제되어야 함.
- 재배규모 측면에서는 1.0ha 미만 농가가 98.3%로 대부분을 차지해 단지화·공동경영·공동방제 등 생산체계 전환에 제약이 큼. 또한 한계지역 재배 비중이 높을 경우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재배적지 중심의 집적과 기술지도가 병행될 필요 있음.



<그림 43> 포천시 읍면동별 콩 재배면적 분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2022



<그림 44> 재배규모별 농가현황

- 지목별 재배는 논콩 5.8%, 밭콩 94.2%로 밭콩 중심 구조이며, 논콩은 대원콩 중심으로, 밭콩은 대원콩 외 청자5호, 강풍, 새바람, 청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전체적으로는 특정 품종 의존이 강해, 기상 리스크에 대한 완충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표 17> 2024년 포천시 콩 품종별 재배현황

논콩		밭콩	
품종명	재배면적(ha)	품종명	재배면적(ha)
대원콩	32.3	대원콩	490.7
선풍	0.6	청자5호	25.0
강풍	0.2	강풍	7.3
		새바람(경북)	4.0
		청태	2.0
		풍산나물콩	1.5
		기타	4.5
총계 (비율 %)	33.1 (5.8%)	총계 (비율 %)	535.0 (94.2%)

기타: 대풍2호(0.5ha), 대찬(0.5ha), 쥐눈이콩(0.5ha), 밤콩(0.5ha), 세움(0.2ha), 아람(0.2ha)  
출처: 경기도내부자료

## 2 재배 품종 집중도(HHI) 및 분산도

- 품종 재배 집중도는 HHI(허핀달-허쉬만 지수)로 측정함. HHI는 품종별 재배면적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산한 지표로, 값이 클수록 특정 품종에 재배가 집중된 구조를 의미함.
- 분석 결과 경기도 전체 평균 HHI는 0.5022로 비교적 분산된 구조를 보였으나, 파주·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지역은 대원콩 점유율이 80% 이상으로 높은 집중도를 나타냄. 특히 포천시는 HHI가 0.8721로 매우 높아 품종 다양성이 제한된 구조로 확인되며, 수매와 유통 체계가 단일 품종 중심으로 고착될 경우 생산 안정성이 취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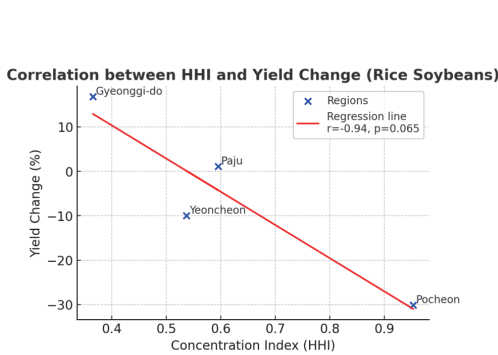
<표 18> 콩 전체 집중도(HHI) 및 최다품종 점유율

지역	품종 수	총면적(ha)	집중도(HHI)	표준편차	최다 품종	점유율(%)
경기도	41	5,393.8	0.5022	510.36	대원콩	70.4
파주시	34	1,027.5	0.7026	117.53	대원콩	82.6
연천군	7	1,200.0	0.7054	314.21	대원콩	79.0
포천시	15	568.1	0.8721	120.35	대원콩	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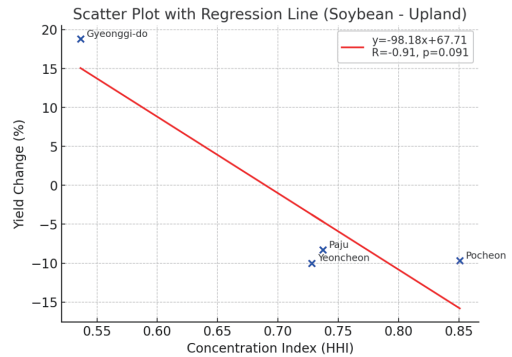
- 포천시 자료를 기반으로 품종 집중도(HHI)와 수확량 증감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0.977\*\*), 논콩(-0.935\*), 밭콩(-0.909\*)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이는 특정 품종에 재배가 집중될수록 최근 수확량 증감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품종 다양성이 기상 변동에 따른 생산 위험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줌.

<표 19> 품종 집중도와 수확량 증감률간 상관계수

구분	전체	논콩	밭콩
상관계수	-0.977**	-0.935*	-0.909*
p-value	0.023	0.065	0.091



<그림 45> HHI와 수확량 증감률간의 상관관계(전체)



<그림 46> 상관관계(밭콩)

- 이러한 결과는 품종 집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기후변화나 재해 발생 시 생산 안정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포천시는 높은 품종 집중도와 낮은 수확량 증감률이 동시에 나타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해석됨.
- 따라서 포천시 콩 산업의 생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량성, 가공 적성, 내재해성을 고려한 품종 다변화 전략과 함께 단일 품종 중심의 수매·유통 체계를 개선하여 보다 유연한 생산·유통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3 포천시 콩 생산 및 유통관련 이슈 분석

- 포천시 콩은 영중농협, 가산농협, 소흘농협, 일동농협, 포천농협을 통해 수매가 이루어지며, 농협별 수매가격은 4,700~5,000원/kg 범위로 차이가 존재함. 이는 농가의 출하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물량 집적과 품질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농협 수매 원료곡은 관내외 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으로 출하되고 있음. 농협 외 직거래 경로도 존재하며, (주)성호로의 출하(2024년 기준 연간 11,160kg), 학교급식 납품(2.4톤), 관외 가공업체 납품(37톤) 등 일부 물량은 직거래로 유통되고 있음. 이는 ‘농협 중심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도 신규 판로 확장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함.
- 현재 지역농협 수매는 대원콩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강풍콩은 인지도와 수매체계 미비로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강풍콩을 지역 전략품종으로 육성하려면 재배 확대에 더해 수매(거래조건)-가공(제품)-판매(브랜드)를 연결하는 통합 설계가 필요함.
- 벼 대체 논콩 재배 확대는 생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판로·가격 안정 장치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농가 소득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이에 따라 두류 비축수매 등 가격 안정 장치, 공공급식·가공업체 연계형 계약재배, 가공업체 홍보 및 공동 판촉, 신규 콩 가공품 개발이 병행되어야 함.
- 종합하면 포천 콩 산업의 당면 과제는 ① 농협 수매 중심 구조의 안정성 유지, ② 직거래·공공급식·가공 연계 등 판로 다변화, ③ 강풍콩 중심의 차별화 전략과 수매체계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음.

<표 20> '24년 포천콩의 수매현황 및 주요 판로

구분	수매량 (톤)	수매가격 (원/kg)	주요 판매처 및	판매수량 (톤)
영중농협	205	4,800원	강릉초당순두부, 알찬식품, 가래울영농조합법인	117
			식당, 도매업체 등 기타	88
일동농협	12	4,800원	영중농협, 도매업체	12
소흘농협	46	4,800원	영중농협	46
포천농협	77	5,000원	가공업체, 도매상, 식당 등	77
가산농협	4	4,700원	가공업체, 식당 등	4
합계	344			344

출처: 포천시농업기술센터

# V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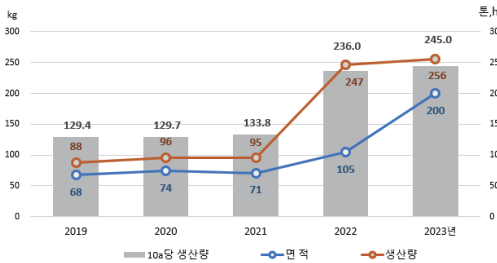
**비교대상 지역의 콩  
육생사레**

# 05

## 비교대상 지역의 콩 육성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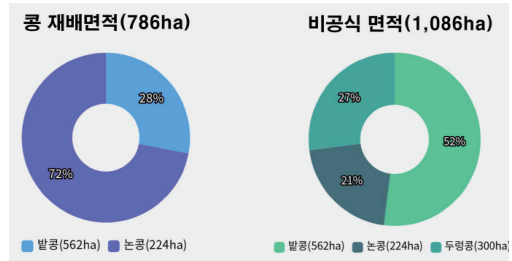
### 1 충남 당진시 콩 생산동향

- 당진시 콩 재배면적은 2023년 기준 200ha, 생산량은 256톤으로 나타났음. 이는 2019년 대비 재배면적 194%, 생산량 191% 증가한 수준으로 2024년 재배면적은 786ha로 전년 대비 293% 증가하여 단기간에 재배 기반이 크게 확대된 사례로 평가됨.
- 2023년 기준 10a당 생산량은 245kg으로 2019년 대비 약 89%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배기술 개선, 기계화 확대, 재배환경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산성이 향상된 결과로 해석됨.



<그림 47> 당진시 콩 생산현황

자료: 당진시 통계연보



<그림 48> 2024년 콩 재배면적

자료: 당진시 내부자료

주: 두렁콩은 논두렁에서 수확한 콩

- 당진시는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논콩 산업의 기반을 구축했음.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22억 7,900만 원을 투입해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파종기와 콤바인 지원, 건조 기계화 도입, 지하수위 제어 기반 무굴착 암거배수 기술 적용, 신품종(선품) 보급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였음.

## 2 당진시 콩의 혁신 성장과 주요 성과 요인

- 당진시는 2022년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3~2024년 2년간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콩 재배단지 조성을 추진함.
- 2020년 기준 70ha 규모에서 2024년 기준 786ha(밭콩 562, 논콩 224)로 확대 되었고 남부권 중심으로 118ha 규모의 재배단지를 조성해 집적 효과를 확보함.  
※ 당진콩 소득은 벼보다 1.5배 이상 높고, 시장가격은 타지역 서리태보다 1,000~ 2,000원 높음.



[ 단지조성 확대 ]



[ 무굴착 암거 배수 ]



[ 선유2호-장콩 지역실증 ]

-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의 기계화를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과 작업 안정성을 높였음. 또한 무굴착 암거배수 기술\*을 도입하여 생력화 모델을 구축하고, 기존 굴착 방식 대비 매설 비용을 약 50% 절감하는 등 생산 기반의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였음.

\* 무굴착 암거배수: 배수 개선을 위해 지하에 고랑을 파고 토관 등을 묻어 물을 배출하는 배수 방식

- 순성농협과 신평농협에 콩 색채선별장을 설치하여 시간당 2톤의 선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논콩 건조 기계화를 도입하여 건조 균일성을 높이고 손상률을 줄임으로써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였음.



[ 색채선별기 ]



[ 일괄선별기 ]



[ 정치식 건조기 ]

-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협력하여 콩을 활용한 15종의 메뉴를 개발하고 이를 지역 소상공인에게 기술 이전하였음. 이를 통해 콩 산업을 관광·외식 산업과 연계하여 소비 기반을 확장하였음.

- 지역 내 가공산업도 함께 육성하여 서리태 분말, 단백질 셰이크, 콩찰떡, 볶은 서리태, 콩 막걸리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였음.



[ 세은바이오 ]  
서리태 분말

[ 세은바이오 ]  
단백질 셰이크

[ 농업회사법인(주) ]  
[ 갓지은 ]  
서리태 콩찰떡

[ 신평농협 ]  
두령콩  
볶은 서리태

[ 신평양조장 ]  
콩 막걸리

- 지역 음식 문화와 연계한 소비 기반도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령콩 수제비, 서리태 콩국수 등이 지역 음식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면천읍에는 서리태와 백태를 활용한 ‘콩국수 거리’가 형성되어 있음.
- 지역 카페와 베이커리에서 서리태를 활용한 메뉴가 확대되고 있으며, 순두부 아이스크림, 서리태 라떼, 서리태 빵(서리태 쫄쫄이) 등이 판매되고 있음.



[ 미미커피방앗간 ]  
당진순두부 아이스크림  
출처: 당진시농업기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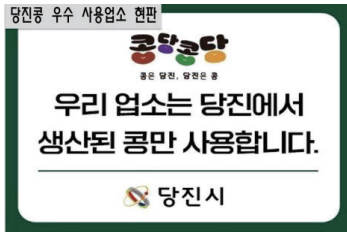
[ 미미커피방앗간 ]  
서리태 라떼



[ 아카렌가 ]  
서리태 쫄쫄이(빵)

- 로고와 캐릭터 개발, 직거래 장터 운영, 유튜브 홍보, 시식 행사 개최, 협의회 구성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브랜드 접점을 확대함. 이는 단순한 생산 확대를 넘어 홍보·체험·유통 채널을 동시에 강화하여 소비와 판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됨.
- 온라인 쇼핑몰과 농산물 유통업체를 초청하여 융복합 회원 농가의 판로 개척과 유통 상담을 진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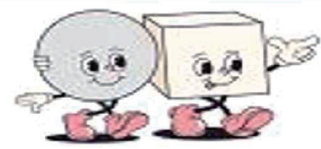
- 특히 당진콩 우수 사용업소로 선정된 음식점 5개소가 참여하여 메뉴 설명 및 시식 행사, 특화 메뉴 실습 교육, 현장 컨설팅 등을 총 3회 실시하였음. 이 과정에서 순두부 아이스크림과 순두부 크림 녹차라떼 등 신규 메뉴 기술 이전도 이루어졌음.
- 농업기술센터가 제품명 개발, 포장 디자인, 가공 제품 개발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시비 3억 7천만 원을 확보해 소비 활성화, 재배단지 확대, 기계화 지원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당진콩 우수 사용업소 현판 ]  
출처: 당진시농업기술센터



[ 당진콩 로고 '콩당콩당' ]



[ 당진콩 캐릭터 '콩이와 당이' ]

- 이러한 사례는 재배단지 조성-기계화-선별·건조 시설-가공 산업-브랜딩 및 홍보가 통합적으로 추진될 때 생산 확대가 생산성 향상과 소비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됨.



# VI

---

**포천시 콩 육성 전략 및  
분야별 발전 과제**

## 1 포천시 콩 발전 방향 분석

- SWOT 분석을 통해 포천 콩 산업의 내부 역량(강점·약점)과 외부 환경(기회·위협)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SO·WO·ST·WT 전략을 도출하였음.
- 포천 콩 산업의 강점요인(S)은 ① 관내 두부·콩물 등 가공 기반, ② 콩연구회 중심 강풍콩 재배·유통 시도, ③ 병해충·기상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강한 품종(강풍콩) 활용 가능성, ④ 농업기술센터의 육성 의지, ⑤ 친환경·무농약 재배 기반의 확장 가능성 등임.
- 약점요인(W)은 ① 포천콩 브랜드 인지도의 취약, ② 원료곡 공급지로서 규모·집적의 한계, ③ 소비자 접근성 및 인구 유입 요인의 제한, ④ 농협·대형 식품업체 중심의 협상력 구조, ⑤ 대원콩 단일 품종 수매 구조로 인한 전환 제약 등임.
- 외부 기회요인(O)은 ① 건강·미용 중심 소비트렌드 확산, ② 식물성 단백질 선호 증가, ③ 생애주기별 콩 식품 차별화 상품 확대, ④ 콩즙·두유 등 식물성 밀크 시장 성장, ⑤ 기후 변화로 경기북부의 고품질 생산 잠재력 부각 등임.
- 위협요인(T)은 ① 전략작물직불제에 따른 전국 생산 증가로 가격 하락 가능성, ② 저가 수입 콩 유입 확대, ③ 식품업체의 수입콩 선호 증가, ④ 가정 내 콩 식품 구매 감소 추세 등임.
- SO전략(강점×기회)은 지역 가공업체와 강풍콩 계약재배를 연계하여 두부·콩물·콩즙 등 프리미엄 강풍콩 가공제품을 개발하는 것임. 또한 친환경·무농약 농가 조직화를 통해 친환경 인증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납품을 추진하며, 콩연구회 중심의 브랜드화와 로컬푸드·직거래장터 연계를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WO전략(약점×기회)은 ‘포천콩’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여 건강 및 식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를 지역 브랜드 수요로 연결하는 것임. 또한 강풍콩 수매체계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단일 품종 중심 수매 구조를 완화하고 품종 전환의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음. 두유·콩음료 등 고부가가치 가공제품은 관내 업체와 외부 전문기업의 공동 기획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됨.
- ST전략(강점×위협)은 지역 가공업체 중심의 원료곡 수급 체계를 강화하여 수입콩

확대와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것임. 또한 친환경 강풍콩 기반의 급식·프랜차이즈 등 고정 수요처를 확보해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판매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대응 품종 전환 모델을 강풍콩 외 타 품종으로 확산하여 생산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음.

- WT전략(약점×위협)은 다품종 시험재배와 지역 수요 기반 수매체계를 마련하여 특정 품종 의존도를 완화하는 것임. 또한 가공업체와 연계한 판로 개척과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해 유통 취약 구조를 보완하고 부가가치를 확대해야 함. 기존 농협 중심 유통 구조는 유지하되 직거래, 공공급식, 로컬푸드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병행 구축하여 시장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음.

## 가. 포천시 콩 산업 SWOT 매트릭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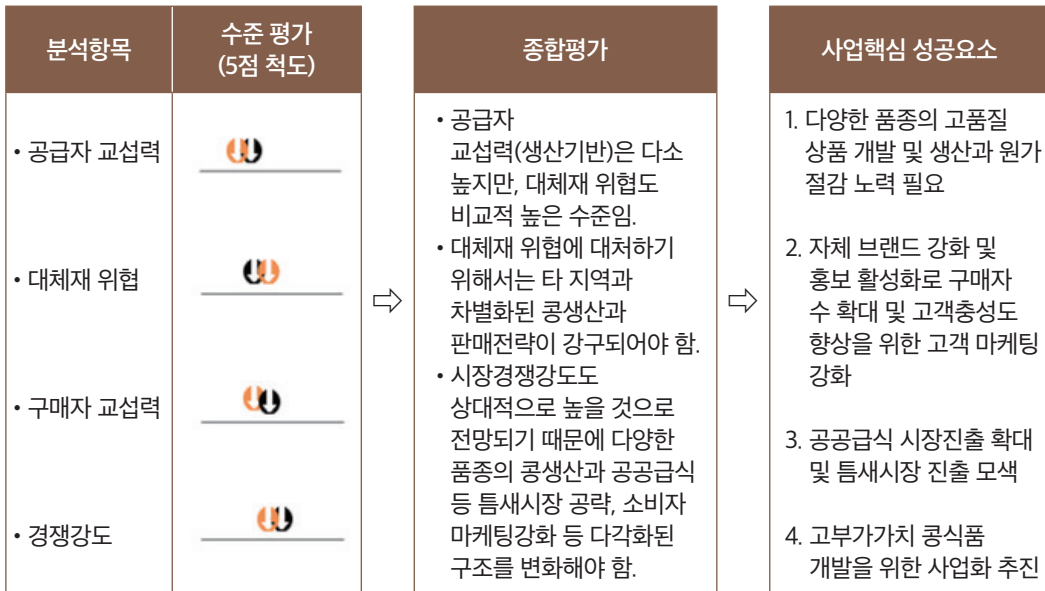
강점요인(Strength)	약점요인(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내 콩 식품(두부·콩물) 제조업체 활동</li> <li>• 콩연구회 중심 강풍콩 재배 생산 및 유통</li> <li>• 기후위기 대비 병해충에 강한 강풍콩 생산</li> <li>• 농업기술센터의 콩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li> <li>• 친환경 무농약 콩 재배 농업인 활동 및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천콩의 브랜드 인지도가 약함</li> <li>• 포천시는 콩 원료곡 생산 공급지역의 한계점</li> <li>• 소비자 접근성이 약하고 인구유입이 높지 않음</li> <li>• 농협과 대형 식품업체에 콩 거래 협상력이 집중</li> <li>• 대원콩 단일 품종 수매 및 판매로 변화에 제약</li> </ul>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과 미용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li> <li>• 식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콩이 선호됨</li> <li>• 콩 식품류 생애주기별 차별화 상품 출시</li> <li>• 콩즙, 두유 등 식물성 밀크 소비 증가</li> <li>• 기후변화로 경기북부는 고품질 콩 생산 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작물직불제로 국내 콩 생산 증가 추세에 새로운 수요 창출 여부에 따라 가격하락 우려</li> <li>• 고품질 저가의 해외 수입콩 유입 증가</li> <li>• 식품업체의 두부·두유용 수입콩 사용 선호도 증가</li> <li>• 국내 소비자 가정내 콩 식품류 구매 감소 추세</li> </ul>

## 나. 포천시 콩 산업 SWOT 매트릭스 전략 도출

구분	핵심적인 대안
SO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콩 가공업체와 강풍콩 계약재배 연계 → 프리미엄 강풍콩 제품 개발</li> <li>• 친환경·무농약 재배 농가 조직화 → 친환경 인증 확대 및 학교급식·공공 급식 납품 연계</li> <li>• 콩연구회 중심 강풍콩 브랜드화 및 로컬푸드직매장·직거래 장터 연계 확대</li> </ul>
WO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콩 브랜드 홍보 강화 → 건강 트렌드·식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에 대응</li> <li>• 강풍콩 수매체계도입 시범사업 → 특정 품종 중심 수매 문제 보완</li> <li>• 두유·콩음료 등 고부가 식품 개발 → 관내 가공업체 및 외부 전문기업과 공동 기획</li> </ul>
ST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업체 중심 자체 원료곡 수급 체계 강화 → 수입콩 유입 및 가격 불안정 대응</li> <li>• 친환경 강풍콩 기반 고정 수요처 확보 →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안정적 소비처 확보</li> <li>• 기후변화 대응 품종 전환 모델을 강풍콩 외 타 품종으로 확대 추진</li> </ul>
WT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품종 시험재배 및 지역 수요 기반 수매 체계 마련 → 특정 품종 의존도 완화</li> <li>• 가공업체 판로개척 및 공동 브랜드 개발 → 유통 취약 보완 및 부가가치 확대</li> <li>• 농협 중심 유통구조 개선 및 직거래 채널 병행 구축</li> </ul>

## 다. 포천시 콩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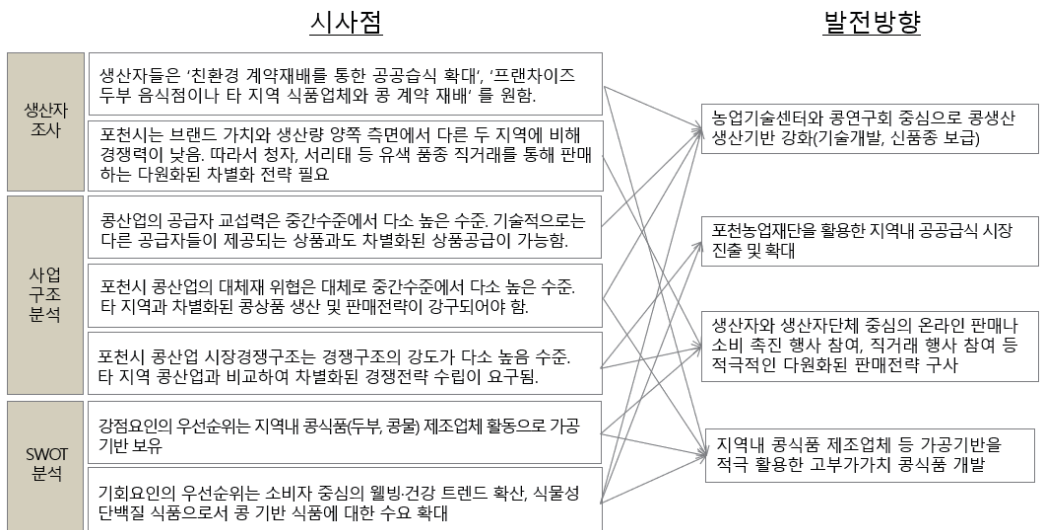
- 공급자 교섭력(생산기반)은 5점 척도 분석 결과 현재·향후 모두 3.3점으로 중간 이상 수준이며, 대체재 위협은 현재 3.3점, 향후 3.2점으로 중간 수준에서 다소 높은 편임. 구매자 교섭력은 2.7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시장경쟁 강도는 현재 3.3점, 향후 3.4점으로 경쟁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종합하면 포천 콩 산업은 생산 확대만으로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품종·품질 차별화와 판로 다변화를 통해 경쟁구조를 돌파해야 함. 특히 대체재 위협과 경쟁 강도가 동시에 높은 구조에서는 브랜드(신뢰)와 고정 수요처(계약)가 핵심 방어선이 되어야 함.
- 따라서 포천시는 대원콩 중심 구조를 보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품종의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친환경 재배 확대를 통해 공공급식·직접판매 등 다각화된 시장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바람직 할것임. 동시에 BI(Brand Identity) 구축과 홍보 활성화를 통해 구매자 기반을 넓히고 고객 충성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림 49> 포천시 콩 산업구조 분석 결과

## 라. 포천시 콩 산업 발전방안

- 포천시 콩 생산자조사를 통해 도출된 콩 산업 발전 우선순위는 판로확보 및 확대와 콩 생산기반 강화 방안이 있음.
  - 포천시 콩 생산자조사 결과, 지역 콩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 계약재배를 통한 공공급식 확대가 나타남.
  - 프랜차이즈 두부 음식점과의 콩 계약재배 그리고 타 지역 식품업체와의 콩 계약재배가 필요함.
  - 공공급식이나 두부 전문 외식업체나 식품업체와의 안정적인 계약재배 등 다양한 판로확보 및 확대되어야 함.
  - 포천시 콩 산업은 브랜드 측면이나 생산량에 있어 파주시나 연천군 콩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 포천시농업기술센터와 포천시농업재단 등 지역농업 관련 기관의 역할이 필요함.
- 독자적인 생산기술 확보를 통해 다른 공급자들과 차별된 상품(콩 식품류)을 공급하는 것과 타 지역과 차별화된 콩(원물) 판매전략이 강구되어야 함.
- 포천시 콩 산업 SWOT분석에서 중요한 요인은 포천시 콩 산업의 강점인 지역 내 콩 식품제조업 등 가공기반 보유와 기회요인인 소비자의 콩 식품에 대한 관심증가와 수요 확대를 적극 활용해야 함.



<그림 50> 포천시 콩 산업 발전 방향

## 마. 포천시 콩 산업 가치사슬 단계별 전략

- (생산) 강풍콩을 지역 대표 품종으로 친환경 인증 확대와 표준 재배 매뉴얼 보급을 통해 품질 균일성을 높이고, 다품종 시범단지를 운영해 기상 리스크 분산이 필요함.
- (유통) 농협 유통망은 대원콩 중심 대량 수요처 공급을 유지하되, 강풍콩은 연구회·직거래·로컬푸드·공공급식 중심의 전용 채널을 구축해 차별화 시장 형성 등 양면적 유통 전략을 제시함.
- (가공) 관내 두부·콩물 업체와 신규 가공기업을 연결해 ‘중소 가공업체 클러스터’ 강화 및 강풍콩 기반의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 성분 분석과 기능성 스토리라인을 결합해 가격 프리미엄 정상화 방안이 필요함.
- (소비·관광) 포천콩을 ‘식문화 콘텐츠’로 전환하여 인증식당 제도, 음식거리 조성, 관광지(한탄강·산정호수·아트밸리 등) 연계 시식·체험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시킬 수 있음.

단계	현황	강점(S) 확대 전략	약점(W) 보완 + 기회(O) 활용 전략
1.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풍콩 중심의 소규모 계약재배</li> <li>• 특정 품종 편중, 기후 위기 대응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천콩연구회를 중심으로 강풍콩 계약재배 확대</li> <li>• 친환경 무농약 콩 생산 농가 조직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 품종 도입 시범단지 운영으로 기후 위기 대응</li> <li>• ‘포천 강풍콩’ 브랜드화 및 생산 매뉴얼 보급</li> </ul>
2.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 중심 구매, 구매 가격 차이 존재</li> <li>• 직거래·가공업체 연계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푸드 매장, 강풍콩 직거래 플랫폼 구축</li> <li>• 강풍콩 기반 유통 협동조합 설립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품종·다용도 구매체계도입 제안</li> <li>• 지역 업체 및 외부 수요처와의 MOU 체결 통한 납품 확대</li> </ul>
3.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부·콩물 제조업체 존재</li> <li>• 강풍콩 구매 불가로 가공 연계 한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콩 가공업체와 협력한 기능성 제품 공동개발</li> <li>• 강풍콩 성분분석 통한 건강 소재화 전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풍콩 사용 시 프리미엄 원재료 인증 도입</li> <li>• 가공용 품종 구매 시범사업 및 생산-가공 연계 프로그램 추진</li> </ul>
4. 소비·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랜드 인지도 낮고, 판촉 활동 제한</li> <li>• 내수 기반 취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학교급식·공공급식 연계 납품 확대</li> <li>• ‘포천 강풍콩 인증식당’ 운영 및 홍보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풍콩 테마 팝업식당, 가을축제 연계운영</li> <li>• 농촌관광지(허브아일랜드 등) 연계 체험형 식문화 콘텐츠 개발</li> </ul>

## 2 포천시 콩 산업 종합진단 및 발전의 3대 전략축

### 가. 포천시 콩 산업 종합 진단

- 포천시 콩 산업은 일정한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재배면적 감소와 단수 변동성 확대 등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산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기상 변동성 확대로 논콩·밭콩의 생산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어 안정적 수량 확보와 품질 고도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유통 구조는 농협 수매 중심의 출하 체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대형 수요처와의 연계는 있으나 지역 내 가공 산업 기반은 취약함. 원물 위주의 출하 구조로 인해 부가가치가 지역 외부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브랜드 경쟁력 부족으로 가격 협상력 확보에도 제약이 있음. 이는 지역 산업 성장 잠재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산업 구조는 생산 중심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가공·외식·관광·공공급식 등과의 연계는 제한적임. 반면 건강 중심 소비 확대와 식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 산업화가 필요함.

### 나. 포천시 콩 산업 발전의 3대 전략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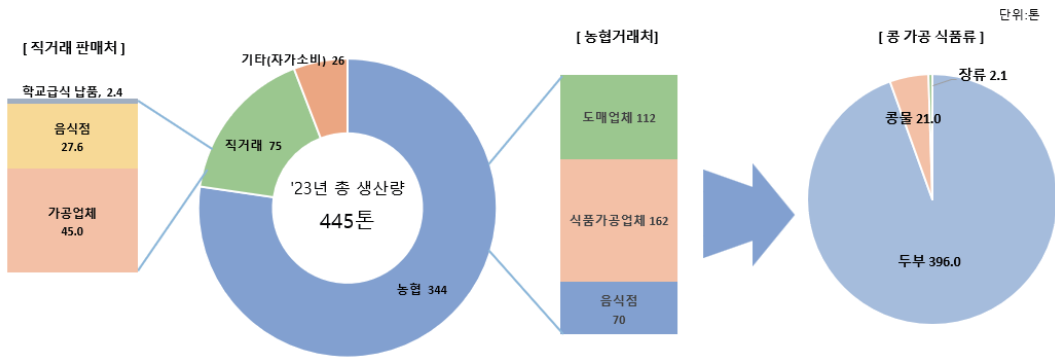
- 첫 번째는 생산 고도화임. 기후변화 대응 재배기술 체계를 정립하고 논콩·밭콩 적지 재배 기준을 확립해야 함.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계획 생산 구조를 구축하고 단수 안정화 기술을 보급하여 생산비 절감을 도모해야 함. 지역 특화 품종을 육성하여 고품질 단백질 원료 산지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두 번째는 유통 및 가공 다변화임. 농협 수매 중심 구조를 보완하여 직거래·기업 연계·공공급식 납품 등 유통 경로를 확대해야 함. 포천산 콩 공동 브랜드 개발과 품질 인증 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 인지도를 제고하고, 두부·콩즙 등 가공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함.
- 세 번째는 산업 생태계 확장임. 콩 생산을 중심으로 가공·외식·관광을 연계하는 가치사슬 모델을 구축하고 학교급식 및 공공조달을 통한 안정적 소비 기반을 확보해야 함. 산·관·농협·기업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콩 산업을 지역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함.

### 3 포천콩 식품산업화 및 지역융복합 사업 방안

#### 가. 포천콩 이용 식품 산업계와 협력 관리 방안

##### 1) 포천콩 생산 및 유통 산업 분석

- 포천시에서 '23년에 생산한 콩은 445톤 수준으로 농협수매로 344톤(77.3%), 농가직거래 75톤(16.9%), 그리고 자가소비 26톤(5.8%)로 유통되고 있음.
- 포천시 5개 농협에 수매된 원료곡은 20여개 이상의 중소형 식품가공업체와 도매업체 그리고 음식점 등에 납품되고 있으며 포천콩 품질관리를 통해 구매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 포천콩 이용 식품류는 두부 396톤, 콩즙(물)이 21톤, 장류 등 기타가 2.1톤으로 분석됨.



<그림 51> 포천콩 생산과 유통 경로별 판매량

##### 2) 포천콩 이용 식품 산업계 협력 전략

###### 가) 포천시농업재단의 지역내 공공급식 시장 진출 및 확대

- 포천시는 공공급식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콩 식품의 소비 촉진과 연계성이 적음.
  - 포천시농업재단이 관내 콩 이용 가공업체와 각종 공공급식 시설의 연계를 통해 콩 식품류 생산과 유통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의 추진을 제한함.

<표 21> 포천시의 공공급식 관련 조례

조례명	담당부서
포천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포천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활성화 지원조례	
포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 포천시농업재단이 조례에 따라 포천시에서 생산되거나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지역 농식품의 판매·홍보 등 마케팅 지원과 유통·판매 촉진, 농축산식품산업·체험, 관광 등을 연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관련 사업을 주관하도록 하고 있음.

<표 22> 포천시 농업재단 추진사업

사업내용
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생산되거나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지역 농식품의 판매·홍보 등 마케팅 지원과 유통·판매 촉진, 농축산식품산업·체험, 관광 등을 연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군납,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보육,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식재료 등 농식품 공급
친환경농축산식품 생산 및 로컬푸드, 메디푸드 육성을 위한 사업
농산물 우수관리(GAP) 등 인증사업
농축산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수출지원 사업
친환경농축산식품 소비촉진 및 도농교류·도시농업 활성화
우수 농축산식품에 대한 체험활동

- 관내외 음식점, 가공업체, 각종 학교급식시설 등이 포천시 생산 콩을 구매시 특정단가 차액 지원을 제안함.
- 이미 제정된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2025.4.16.)가 있어 쌀 소비는 지원 가능하며, 포천콩을 구매하는 식품가공업체, 음식점, 카페 등의 보조금 지원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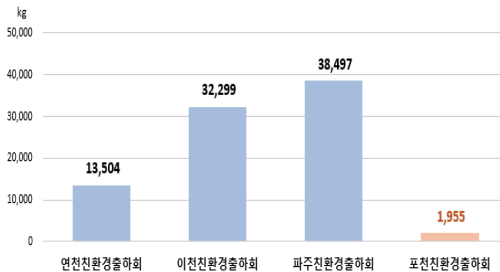
#### 나) 영중농협 중심의 수매 및 유통 전략

- 5개 농협 중 영중농협이 가장 많은 콩을 수매하고 일부 농협의 원료곡도 납품 받음. 영중농협을 중심으로 콩 수매와 유통을 집중함으로써 거래처 유지 확보 전략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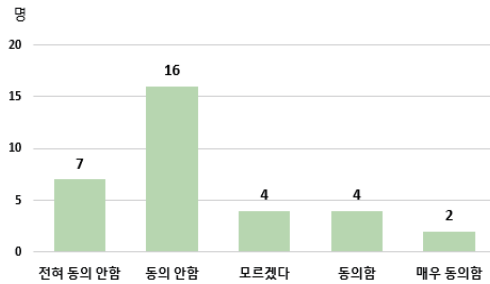
As-Is (현재)	To-Be (미래)
<p data-bbox="257 548 664 578">&lt; 포천시 5개 농협의 콩 구매량 비율 분포 &gt;</p>	<p data-bbox="849 548 1106 578">&lt; 영중농협의 주요 거래처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천시 5개 농협 344톤</li> <li>- 영중농협 205+58톤(일동 12, 소흘 46톤)</li> <li>- 포천농협 77톤, 가산농협 4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중농협이 콩 구매 규모 확대: 80%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거래처: 강릉초당순두부 60톤, 알찬식품 40톤, 농부농산 20톤 등 21개소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거래처: 강릉초당순두부 100톤, 가래울영농조합 60톤 등 중대형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량 부족(24)으로 강릉초당 물량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도 강릉초당순두부와 거래 규모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천시 보조금 지원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천콩 소비촉진 보조금 지원</li> </ul>

**다) 포천콩연구회 중심의 학교급식용 친환경 콩 생산은 낮은 수준으로 향후 확대가 필요함.**

- 학교급식용 친환경 콩은 8천원/kg의 높은 단가에 판매할 수 있어 연구회 참여를 독려함.
- 그러나 '24년 이행물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친환경 재배 참여의향 농가도 많지 않음.
- 향후 연구회 중심으로 친환경 재배농가의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도가 필요함.



<그림 52> '24년 학교급식용 친환경 콩 이행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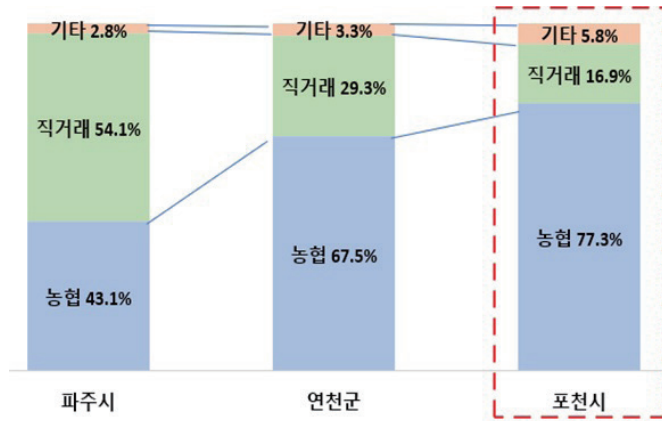


<그림 53> 학교급식용 친환경 콩 계약재배 참여 의향

## 나. 지역 식품가공 업체 육성과 콩 이용 식품 연계 방안

### 1) 지역내 콩 이용 비중을 높이는 방안 제안

- 경기북부 3개 시군 중에서 포천시의 농협 수매 비중이 7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파주시는 직거래 비율이 54.1%로 지역내 두부 및 장류 제조, 두부 음식점 등으로 활용됨.
- 포천시도 가공업체의 콩 식품류 제조 및 판매와 관광지역 음식점 소비 확대 방안이 필요함.
- 포천농시업재단이 콩 식품류의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사업을 추진하면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임.



<그림 54> 경기북부 콩 유통 경로별 판매량 비교

### 2) 지역 식품 네트워크 구축과 관광객 홍보 방안

- 포천시 소재 콩 이용 식품가공업체, 음식점, 카페 등 ‘콩식품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사업도 필요함.
  - 식품가공업체(두부, 콩물) 5개소, 두부요리 음식점 22개소, 콩 이용 카페 1개소
- 포천시는 한탄강 둘레길, 산정호수, 포천허브랜드 등 주요 관광명소와 파주길로 불리어지는 장소를 ‘두부거리’로 조성하고 ‘콩식품 네트워크’로 홍보하는 것을 제안함.



<그림 55> 포천시 콩 이용 식품가공업체, 음식점, 카페

### 3) 지역 식품가공업체 육성과 콩 소비 촉진 기반 구축

가) 지역 식품가공업체 「가래울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콩 식품류 제조 규모를 확대하고 포천콩 소비 촉진에 연계하는 산업 내재화가 필요함.

- 가래울영농조합법인은 접경지역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현재 두부 및 콩즙 제조시설을 확장 설치 중에 있어 향후 규모 확대시 포천시에서 생산하는 콩 소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As-Is (현재)	To-Be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콩 구매 규모 31톤</li> <li>- 두부용 22톤</li> <li>- 콩즙용 9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콩 구매 규모 60톤 이상</li> <li>- 두부용 45톤</li> <li>- 콩즙용 15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동 제조 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경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규모 확대</li> <li>• 자동화 시설로 현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천시 관내 농협 및 인근 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양주시, 구리시 등 권역 확대</li> </ul>

#### 나) 마시는 콩즙 상품화와 포천콩 소비 확산 방안

- 지역농협과 포천시공연구회로부터 원료곡을 구매하여 ‘마시는 콩즙’ 상품화 및 생산·유통 연계 확대 방안 제안함.
  - 현재 ‘마시는 콩즙’의 생산량 및 판매시기: 13톤 생산, 5~8월 제조 유통, 유통기한 연장(기존 3일 → 상온보관)
  - 농협수매 중심의 포천콩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관내 생산 포천콩을 활용한 상품화를 통해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유통경로를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산림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으로 확대



<그림 56> 가래울영농조합법인 콩물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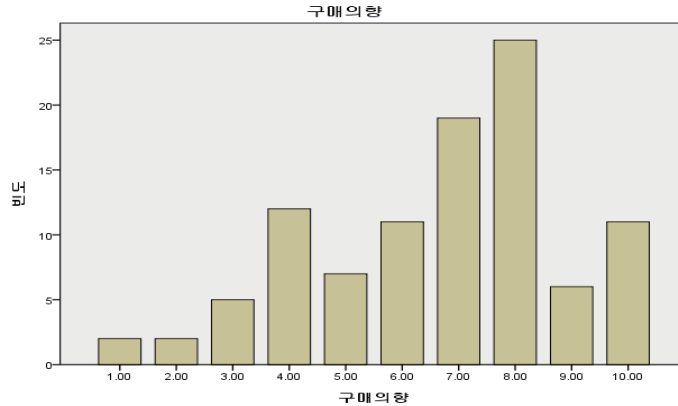


<그림 57> 콩물 디자인 및 제품정보

#### 다) 가래울영농조합법인의 마시는 콩즙(물)에 대한 소비자 구매의사 조사

- 농협매장에 판매 중인 콩즙(물) 상품의 사진을 제시한 뒤, 구매 의향과 지불의사 금액, 판단 이유를 조사함.

- 제공된 정보의 장점으로 포천에서 생산된 국산 콩 100% 사용과 첨가물 무첨가를 제시했고, 단점으로 첨가물 무첨가로 인한 짧은 유통(소비)기한을 제시했음.
- 구매 의향의 경우 10점 만점에 평균 6.67점, 중위수 7로 나타났음. 이는 제시한 사진을 본 응답자의 구매 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림 58> 가래울영농조합 생산 콩즙(물)에 대한 소비자 응답자 구매의향

- 선택이유로 ‘첨가물이 없다’가 3.77점으로 가장 높았는데 건강과 관련된 정보가 영향을 준 것임. 그 뒤를 포장 패키지, 생산지, 색깔 순서로 나타났음.
- 제시한 제품의 구매를 위해 지출 의사가 있는 금액에 최소값 1,000원, 최대값 15,000원, 평균 5,711.5원으로 조사되었음. 이 금액은 900ml 상품을 5,400원에 판매 중인 시판가격보다 300원 높은 것임.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래울 콩물	1,000원	15,000원	5,711.46	3,016.197

- 콩 활용 제품(콩물/콩즙)은 건강과 맛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건강이 가장 높은 점수(3.91)로, 가격은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임. 이를 콩물 사업 타겟층 설정과 제품 개발, 마케팅에 적용해 볼 때, 기능성 표시제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콩물은 성장기 영양분 공급이 필요한 계층과 고령층을 타겟으로 설정하고 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특유의 비릿한 향과 맛으로 소비력이 높은 계층은 거부감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소한 맛을 늘리고 간편하게 휴대 및 1회 사용량을 고려한 패키지 운영을 통해 소비계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콩물이 단순히 콩국수를 만드는 재료를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임.

### 라) 콩 이용 융복합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 추천

- 포천시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가래울영농조합법인의 두부 및 콩즙 등 콩 식품류 제조시설 확대를 지원하고 있음.
- 콩 가공산업화 및 융복합 단지 조성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산콩 가공산업화 지원사업, 농촌진흥청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략작물(밀·콩·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공모할 수 있음.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시·군) 및 관련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 기반 조성, 수확 후 선별·건조·저장시설 구축, 가공 및 브랜드화, 유통·소비 활성화,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li> <li>• 지원예산: 20억 원(국비 50%, 시비 50%)</li> </ul>
전략작물 (밀·콩·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형: 식품제조·외식업체, 유통(급식)·제조컨소시엄</li> <li>• 기획형: 지자체상품개발 등 신사업 기획 공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형: 국산밀·콩·가루쌀을 활용한 제품화 패키지 지원</li> <li>• 기획형: 주제별 여건에 맞는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기획 공모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농업법인 컨소시엄 주관 가루쌀 활용 제품 리뉴얼, 인기 품목의 가루쌀 활용 전략 마련</li> <li>신규분야 수요창출 유도</li> </ul> </li> <li>• 제품개발, 가공제조, 원료·가공·조리 등 산업 전 과정 지원</li> <li>•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형 5천만 원~3억 원(11개소 내외)</li> <li>- 기획형 3~5억 원(콩 1개소 내외)</li> <li>- 국고보조율: 국산 밀·콩 50%</li> </ul> </li> </ul>
국산콩 가공산업화 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 당시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이 수립·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 부여</li> <li>•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 공급단지, 가공설비 지원 등</li> <li>• '25년 예산: 8,000백만 원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li> <li>• 지원 기간(연부율): 3년 (1년차 40%, 2년차 40%, 3년차 20%)</li> </ul>

# VII

---

요약 및 결론

# 07

## 요약 및 결론

### 1 국내 및 경기도 콩 생산 및 유통 현황

- 국내 콩 생산은 2005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4년에는 약 15만 5천 톤 수준을 기록함.
- 정부가 쌀 적정 생산 조절 정책의 일환으로 논콩 생산을 장려하면서 논콩 단작 시 ha당 200만 원, 이모작 연계 시 최대 3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콩 재배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25년산 재배의향 면적은 약 7만4천 ha 수준으로 전체 면적은 소폭 감소하나 논콩 면적은 전년 대비 17% 증가하고 밭콩은 7.4%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 국내 콩 생산량은 당분간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산 콩 소비 확대와 가격 안정 대응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기됨.
- 2024년 경기도 콩 재배면적은 5,465ha, 생산량은 10,629톤이며, 파주·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3개 시군의 재배면적은 2,795.6ha로 도 전체의 51.8%, 생산량은 4,838.5톤으로 45.6%를 차지하여 경기도 콩 생산의 핵심 지역으로 나타남.  
\* 경기도원 조사결과로 국가데이터처와 일부 불일치함.
- 2024년 경기북부 지역은 8월 가뭄과 고온이 겹치면서 착협기 토양수분 부족이 발생하여 결실 저하와 수량 감소로 이어지는 기상 피해가 일부 나타났음.

### 2 콩 식품류 소비트렌드 분석

- 농촌진흥청 농식품 소비정보 DB 분석 결과 신선 콩류 가구당 구입액은 2013년 18,716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6,253원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시기인 2019~2021년에는 가정 내 식품 소비 증가로 일시적 상승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

- 콩 가공식품 소비는 두부, 두유, 콩식품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 가구당 구입액 87,458원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다시 7만 원대 수준으로 감소함. 연령별 소비 특성은 두부는 60대 이상, 두유는 50대, 기타 콩 식품류는 40대 소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콩 가공식품은 생애주기별로 성장기 영양 보충, 성인 단백질 섭취, 노년기 건강관리 식품으로 활용되는 특징을 보임.
- 소비 품목은 두부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콩나물, 장류, 두유, 콩 단백질 음료 등이 뒤를 잇고 있음. 향후 콩 식품 구매 확대 이유로는 건강 유지 및 근력 강화(44.6%), 체중 관리(17.9%), 기존 식습관 유지(17.2%)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콩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콩즙(콩물) 제품은 약 48%가 높은 성장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으며 제품 선택 시 중요 요인은 맛, 가격, 영양, 건강 효과 순으로 나타남. 또한 지역 콩 브랜드 중에서는 ‘청정 DMZ 연천콩’ 인지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이에 따라 향후 콩 산업은 건강성과 맛을 중심으로 한 제품 전략과 함께 소비력이 높은 청년 및 중장년층을 주요 소비층으로 설정하는 전략이 필요함.

### 3 포천시 콩 생산 및 유통 실태

- 2023년 포천시 콩 재배면적은 238.4ha로 2019년 대비 7.8% 감소하였고, 생산량도 445.2톤으로 같은 기간 4.6% 감소함. 이는 재배 기반이 정체된 가운데 생산성 변동이 나타나는 흐름으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와 생산성 제고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포천시 콩 유통은 지역농협 수매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요 수매 품종은 대원콩임. 반면 강풍콩은 인지도와 수매체계가 미흡하여 판매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강풍콩을 지역 전략 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배 확대와 함께 수매 체계 구축, 가공 제품 개발, 브랜드 판매 전략을 연계한 통합적인 산업화 전략이 필요함.
- 또한 벼 대체 논콩 재배 확대는 생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판로와 가격 안정 장치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농가 소득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이에 따라 두류 비축수매 등 가격 안정 정책과 공공급식 및 가공업체 연계형 계약재배 확대, 가공업체 홍보 및 공동 판촉,

신규 콩 가공품 개발 등을 통한 판로 다변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

- 종합하면 포천시 콩 산업의 주요 과제는 농협 수매 중심 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직거래·공공급식·가공 연계 등 유통 경로를 다변화하고, 강풍콩 중심의 차별화 전략과 수매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임.

#### 4 포천시 콩산업 발전 SWOT 분석 및 전략

- SO전략(강점×기회)은 지역 가공업체와 강풍콩 계약재배를 연계하여 두부·콩물·콩즙 등 프리미엄 강풍콩 가공제품을 개발하는 것임. 또한 친환경·무농약 농가 조직화를 통해 친환경 인증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납품을 추진하며, 콩연구회 중심의 브랜드화와 로컬푸드·직거래장터 연계를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WO전략(약점×기회)은 ‘포천콩’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여 건강 및 식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를 지역 브랜드 수요로 연결하는 것임. 또한 강풍콩 수매체계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단일 품종 중심 수매 구조를 완화하고 품종 전환의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음. 두유·콩음료 등 고부가가치 가공제품은 관내 업체와 외부 전문기업의 공동 기획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됨.
- ST전략(강점×위협)은 지역 가공업체 중심의 원료곡 수급 체계를 강화하여 수입콩 확대와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것임. 또한 친환경 강풍콩 기반의 급식·프랜차이즈 등 고정 수요처를 확보해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판매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대응 품종 전환 모델을 강풍콩 외 타 품종으로 확산하여 생산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음.
- WT전략(약점×위협)은 다품종 시험재배와 지역 수요 기반 수매체계를 마련하여 특정 품종 의존도를 완화하는 것임. 또한 가공업체와 연계한 판로 개척과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해 유통 취약 구조를 보완하고 부가가치를 확대해야 함. 기존 농협 중심 유통 구조는 유지하되 직거래, 공공급식, 로컬푸드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병행 구축하여 시장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음.

## 5 포천시 콩 육성 전략 및 분야별 발전 과제

- 포천시 콩 산업은 대원콩 중심의 생산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품종의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친환경 재배를 강화하여 공공급식, 직거래 등 다각화된 시장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또한 BI(Brand Identity) 구축과 홍보 강화를 통해 지역 콩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구매 기반을 확대해야 함.
- 콩 산업 가치사슬 측면에서 생산 단계에서는 강풍콩을 지역 대표 품종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인증 확대와 표준 재배 매뉴얼 보급을 통해 품질 균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품종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기상 리스크를 분산해야 함.
- 유통 단계에서는 농협 중심의 대량 수요처 공급 체계를 유지하되, 강풍콩은 연구회·직거래·로컬푸드·공공급식 중심의 전용 유통 채널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가공 단계에서는 지역 두부·콩물 업체와 연계하여 프리미엄 가공제품을 확대하고 기능성 성분 분석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포천시 콩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 고도화, 유통·가공 다변화, 산업 생태계 확장의 세 가지 전략이 중요함. 생산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재배기술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유통 측면에서는 농협 수매 구조를 기반으로 직거래, 공공급식, 기업 연계 등 다양한 판매 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공 산업과 외식·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 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함.
- 이를 위해 포천시농업재단을 중심으로 공공급식과 지역 가공업체를 연계한 콩 식품 생산·유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포천산 콩을 사용하는 음식점과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영중농협을 중심으로 콩 수매와 유통 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지역 가공업체, 음식점, 카페 등을 연계한 '포천 콩식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탄강, 산정호수, 포천허브랜드 등 관광지와 연계한 두부거리 및 체험형 먹거리 프로그램을 조성하여 소비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래울영농조합법인」 등을 중심으로 콩 가공식품 생산을 확대하고 '마시는 콩즙' 등 신규 제품 개발을 통해 포천콩 소비 확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콩 산업 융복합 발전을 위해 국산콩 가공산업화 지원사업,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전략작물 제품화 지원사업 등 관련 공모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참고 문헌

1. 경기도농업기술원. 2015. '두류 소비트렌드 변화와 대응전략'. 경기농업 FOCUS-04.
2. 농촌진흥청. 2017. '콩 경영관리'. 농업경영자료 08호.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2025. '콩'. 농업관측 4월호, 11월호.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식물성 대체육 시장동향 및 전망'. 세계농업 3월호.
5. 농림축산식품부, 2024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24.
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조회서비스(<https://uni.agrix.go.kr>)
8. 국가데이터처(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kamis.or.kr), 2022 품목별 유통실태(식량작물)
10. 농촌진흥청, '늘어나는 콩 생산에 소비자의 맛과 건강을 사로잡을 콩 식품류' P77~P104. 2024 농식품 소비트렌드 분석.
11. 포천시 내부자료, 각 년도 통계연보
12. 당진시 내부자료, 각 년도 통계연보
13. 고창군, 태안군, 예천군, 제주시 각 년도 통계연보

---

**부록**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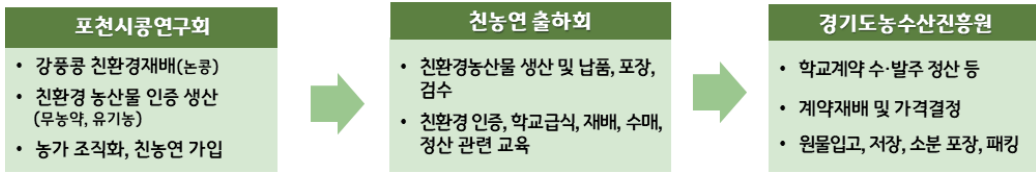
## 경기도 학교급식용 친환경 콩 생산과 두부제조 참여 사업

### ■ 제안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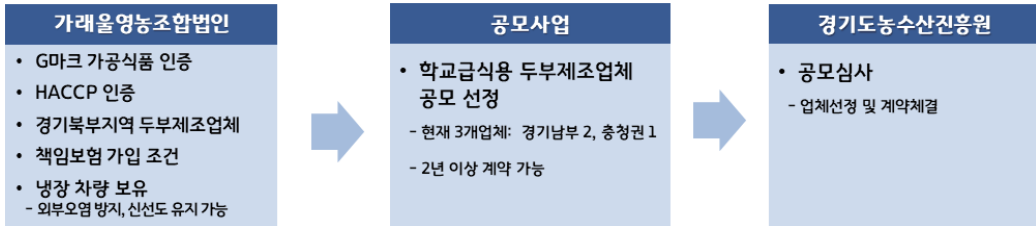
- 친환경학교급식 공급 가공식품 원물을 경기도산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로 전환
  - ※ 경기도 민선8기 도정과제 중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20% 확대 이행 방안
-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두부용 친환경 백태콩을 계약재배 참여에 의한 농가소득증대
- 포천시 친환경 콩 이용 두부 제조와 경기도 학교급식용 가공식품 납품 확대 필요

### ■ 제안내용

- 제안부서: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경기도 학교급식용 친환경 백태콩 생산·출하 제안: 수매 가격 8,000원/kg
  - 포천시 강풍콩 재배농가 및 면적('24년): 포천시콩연구회원 10농가 9.2ha
  - 학교급식용 참여 의향 백태콩 생산 농가 ('25년 계획): 6농가 18.4ha
  - 학교급식용 참여 의향 강풍콩 생산 농가('25년 계획): 4농가 5.1ha



- 경기도 학교급식용 친환경 두부 제조 참여 제안
  - 포천시 소재 두부제조 식품업체의 학교급식용 두부제조 참여: G마크 인증 선결 조건



### ■ 기대효과

-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용 친환경 백태콩 계약 재배 참여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
- 포천시 식품가공법인의 학교급식용 두부제조 참여로 포천콩 수급 선순환 기대

## 경기도 육성 콩 이용 '마시는 콩즙' 상품화 연계 사업

### ■ 제안배경

- 전략작물직불제와 신품종 콩 재배 시범으로 전국적 논콩 생산이 증가 추세임
- 건강을 우선시하는 소비트렌드에 대응 콩즙, 두유 등 식물성 밀크 시장 성장세
- 포천콩연구회 중심으로 경기도 육성 강풍콩 재배 확대를 원하나 농협수매에 어려움

### ■ 제안내용

- 제안부서: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콩즙용 기능성 콩 생산) 포천시콩연구회 중심으로 콩즙용 기능성 콩 생산단지 운영
  - 원료곡 이용 가공, 판매, 브랜드화로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육성 필요
  - 콩연구회는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콩 생산: 흰콩(강풍콩) + 검정콩(연천41호)
  - 강풍콩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필요시(건강기능 효과) 검정콩(20%) 추가
- (마시는 콩즙 상품화) 경기도 육성 콩 이용한 '마시는 콩즙' 시범 상품화
  - 콩즙용 기능성 콩 생산-상품화 연계 사업 협력 체계 구축  
도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 기술센터, 콩연구회, 식품업체 등
  - 포천시 식품가공업체와 연계한 콩즙 상품화 및 유통: 하나로마트 및 로컬매장
  - 기존 시판되고 있는 콩물과 달리 '마시는 콩즙' 용기 및 포장재 적용
  - 마시는 콩즙용 적정 용량 설정, 용기 포장재 디자인 등
  - 기존 굵은 입자의 콩물 대비 촘촘한 거름망 이용 부드러운 맛으로 상품화
  - 마시는 콩즙에 대한 소비자 반응 시장조사에 의한 환류 작업

### ■ 기대효과

- 콩즙용 기능성 콩 생산과 지역식품업체 연계로 신소득원 개발과 농가소득 증대
  - 지역내 식품가공업체와 협력하여 마시는 콩즙 제조 및 소비처 판매 확대
- 경기도 육성 강풍콩 생산과 연계한 콩즙 상품화로 선순환 생산-유통 기반 마련
  - 원료곡 이용 가공, 판매, 브랜드화로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육성 필요
  - 포천시콩연구회, 지역식품업체 등이 연계하여 콩 생산과 유통 사업화

## 포천콩 식품산업화 및 지역융복합 사업 방안

### ■ 제안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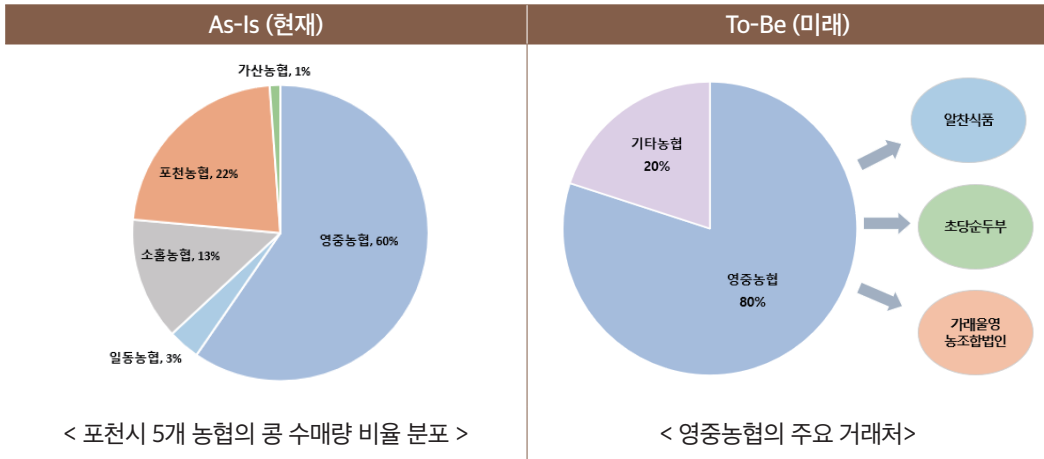
- 포천콩 소비 촉진을 위한 식품 산업화 관리 및 지역 활성화 사업 전략이 요구됨
- 포천콩 445톤은 농협수매 77.3%, 농가직거래 등 16.9%로 유통되고 있음
  - 포천콩 이용 식품류는 두부 396톤, 콩즙(물)이 21톤, 장류 등 기타가 2.1톤으로 분석됨

### ■ 제안내용

- 제안부서: 포천시(포천시 농업정책과, 관광산업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식품 산업화 제안 사업]

- 1) 포천시농업재단의 지역내 공공급식 시장 진출 및 확대
  - 콩 이용 가공업체와 지역 공공급식 시설의 연계를 통해 콩 식품류 생산과 유통 지원사업 추진
- 2) 영중농협을 중심으로 콩 수매와 유통을 집중함으로써 대규모 콩 구매처 유지 확보 전략
  - 콩 수매 규모 80% 이상 확대: 강릉초당순두부 100톤, 가래울영농조합 60톤 등



- 3) 포천콩 구매시 특정단가 차액 지원 제안

- 관내외 음식점, 식품가공업체, 카페 등 에서 포천콩 구매시 차액 지원: 6천 원/20kg

### **【 지역활성화 제안 사업 】**

- 1) 지역 가공업체 「가래울영농조합법인」 콩 식품 제조 규모 확대 및 포천콩 소비 촉진  
- 시설규모 확장 및 자동화로 연간 콩 구매 규모 60톤 이상: 두부용 45톤, 콩즙용 15톤

### **■ 기대효과**

- 포천콩 안정적 생산과 소비확산을 위해 대규모 구매처 관리 및 지역 소비기반 구축
- 포천콩 이용하는 관내외 식품업체와 공공급식 사업 지원으로 콩산업 융복합 사업 활성화

경기농업 경영정보 제2024-4호

## 콩 식품류 소비트렌드 및 포천시 콩 발전 전략

발간등록번호 71-6410563-100021-01

ISBN 979-11-91875-75-1(90320)

발행일: 2026년 4월

발행: 경기도농업기술원장 조정주

감수: 연구개발국장 이영순

편집: 작물연구과장 이수연

집필: 이원석, 이정명, 김연진, 이인숙, 엄하정

발행처: 18388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전화 031-8008-9292, 팩스 031-8008-9299)

인쇄처: 디자인봄 (031-236-3883)

「경기농업 경영정보」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nongup.gg.go.kr) 농업경영정보자료에서 제공됩니다.